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다.
잘못의 시초이며 악의 근본이다.
술은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1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8호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탈북민 입국과정 불자는 10%
초기부터 포교하는 스님 없다

北인권정보센터 발간 〈2017 종교자유백서〉 살펴보니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과정서 불자는 10명 중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시점에서 조사시설(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과 하나원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입국 초기 포교의 중요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 소장 김웅기)는 12월 13일 2007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만2481명에 대한 종교조사결과를 담은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백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면서 누적된 정보로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 비율이 아닌 입국과정에 대한 결과다. 올해 새로 추가된 인원은 746명이다.

백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1만1765명 중 불교는 1188명(10.1%)으로 개신교 4907명(41.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불교는 무종교 3292명(28%)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톨릭은 1122명(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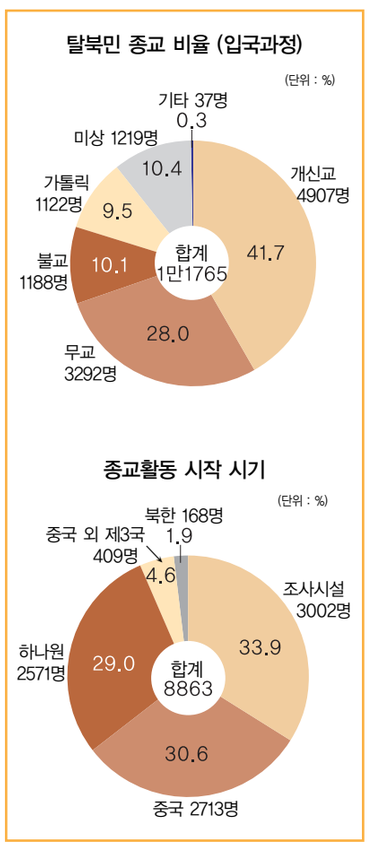
불교는 개신교의 4분의1에 불과한 신자 수가 집계됐지만 2008년 6.6%에 비해 꾸준히 늘어났다. 최근 3년 새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는 64.9%에서 올해 41.7%로 10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종교활동 시작 시점이다. 조사결과 한국에 입국하기 전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에서부터 종교활동을 시작한 비율은 37.1%였으며, 입국 후는 62.9%로 나타났다.

백서를 발행한 북한종교감시기구는 "최근 입국자의 경우 중국 체류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고,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종교기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시설과 하나원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자가 평균 1~3개월 전후 체류하는 조사시설에서 3002명(33.9%), 3개월 동안 합숙생활하는 하나원에서 2571명(29%)이 종교활동을 시작했다. 중국에서부터는 2713명(30.6%)이었다. 특히 하나원서 종교활동을 시작한 비율은 2008년 7.7%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북한종교감시기구는 "조사시설과 하나원을 거치면서 종교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준다. 낯선 공동체 생활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은 것"이라며 "북한에서부터 갖게 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자유와 종교의 의미를 배워가는 중요한 계기가 돼 조사시설과 하나원에서의 종교활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탈북불자, 10년간 늘었지만
개신교 4분의1 수준에 그쳐
조사시설 · 하나원 종교영향↑

타종교, 성직자들 포교 나서
봉사 제한인원까지 다 채워
인적 · 물적자원 열악한 불교

"목사 · 신부는 많은데…"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초기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이탈주민 포교를 담당하는 포교사들에 따르면 현재 조사시설에는 포교하는 스님이 없다. 타종교계서 목사 · 신부 · 수녀 등이 조사시설에 들어와 전도하는 데 비해 불교는 포교사뿐이어서 영향력이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한 포교사는 "현재 조사시설에 있는 탈북민 중 불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포교사들의 연령대도 비교적 높은 데다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탈북민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잡한 마음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즐겁게 해주는 게 우선"이라며 "개신교계에서는 성직자들이 기타연주도 하고, 농담도 하면서 편안하게 접근한다. 스님들도 이곳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머무는 안양 하나원에서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 꾸준히 포교하며 불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하지만 남성 북한이탈주민 시설인 화천 제2하나원에는 스님과 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하나원에서 활동하는 다른 포교사는 "개신교는 교역직을 비롯해 출입 가능한 봉사인원 20명을 다 채워온다. 시각적으로도 사람이 많아 북적이면 탈북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마련"이라며 "불교는 봉사자가 4~5명인데다 스님도 없어 홍보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 · 인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10여 년째 하나원 포교를 이어오고 있는 지강 스님은 "스님들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몸만 가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고민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나아지기 어렵다"며 "칠장사 살림 중 포교비로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 큰 원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주변에 권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종교활동 탄압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809명(50.9%)이 종교활동 적발 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고 답했다. 정치범 수용소행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포상식 이후 수상자들과 주요 내빈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지형 · 도혜 · 일초 · 묘순 · 무상 · 명성 · 원행 · 설정 · 지홍 · 종진 · 현응 · 덕민 · 지안 · 용학(무비 스님 대리) · 덕문 스님(혜남 스님 대리) **사진= 박재완 기자**

종단 인재불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계종 교육원, 12월 19일 첫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식

평생을 종단 인재불사에 매진해 온 교육 교역자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포상식에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 · 포교원장 지홍 · 호계원장 무상 ·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과 승가대학 관계자와 신도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승가교육 공로자는 종단의 승가교육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교육 경력 30년 이상의 원로 교역자 스님 10명이 선정됐다.

비구 스님으로는 종진 스님(법계위원), 덕민 스님(경주 기림사 성림금강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무비 스님(前 범어사 승가대학장), 혜남 스님(영축총림 율주,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 교수), 지안 스님(고시위원장)이 수상했다. 다만, 무비 스님과 혜남 스님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으며, 용학 스님과 덕문 스님이 대리 수상했다.

비구니 스님으로는 명성 스님(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묘순 스님(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일초 스님(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장), 도혜 스님(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청암사 승가대학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포상을 받는 스님에게는 표창패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설정 스님은 치사에서 "승가교육이 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스님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라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교학 연찬을 위해 컴퓨터를 마주하며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는 원로 교직자 스님들의 열정을 귀감삼아 후학들의 쉼없는 정진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상을 받은 스님들은 그간 도움을 준 인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정진을 약속했다. 종진 스님은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이끌어주신 스님들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인연에게 공을 돌린다. 이를 채찍으로 삼아 공부하고 회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안 스님은 "앞으로도 승가는 사회 변화에 맞춰 전법과 포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가교육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 나 자신도 정진 또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성 스님은 "덕이 많지 않아 이런 칭찬을 받는 게 쑥스럽다. 초심으로 돌아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죽을 때까지 후학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으며, 일초 스님은 "45년 동안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있는가를 돌아봤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신성민 기자**

태고종 종단 부채 해결, 발전 신호탄

12월 19일 중앙종회 제132회 정기회서 발표

태고종이 종단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12월 1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32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종단 부채 상환경과에서 "지난 임시회에서의 종단부채 상환 위한 교육기금 전용으로 부채를 상환해 11월 30일부로 부채문제는 종결됐다"고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2018년도 중점 사업으로 △전통종단 위상 강화 △제도 보완 및 법치주의 실현 △종단조직 재정비 △분담금 징수제도 합리화 △승가정신 함양 및 수행풍토 조성 등을 제시했다.

편백운 스님은 "태고종은 내부로 역량을 결집시키고 밖으로 이를 확대해 교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누구라도 손을 잡고 종단안정과 종세성장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고종 중앙종회는 후반기 중앙종회 의장으로 도광 스님을, 부의장으로 시각 스님과 상명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과 지역 교구 여론을 받아 종법을 충실히 행사하겠다. 함께 상생하는 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총무원과 중앙종회, 호법원이 화합하며 적절한 견제로 종단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18년 태고종 세입 · 세출 예산안은 늘어난 분담금과 각종 지원비 등에 대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지적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이에 대해 2018년 2월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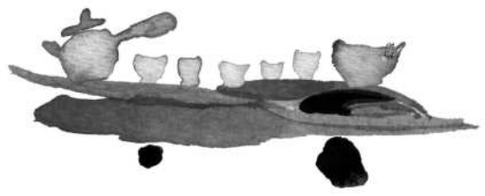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㉒ 법정스님 찻잔

찻잔에 담긴 정성

스님을 뵌 지 이십 몇 년이 됐지만 스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강원도 오두막에 사실 때는 스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휴대폰을 구해드리려고 했지만 스님께서 거절하셨다. 스님은 강원도에서 서울에 오시면 주로 길상사에서 손님을 맞았다. 그런 뒤 보원요 김기철 선생 댁을 들렀다 가시곤 했다.

김기철 선생은 법정 스님께서 좋아하는 도예가이자 안사람의 스승이다. 스님은 나를 만날 때마다 "요즘은 보살이 운전을 잘 하는가?"하고 물으셨다. 출가 전 여동생에게 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어서인지 여성에게는 사뭇 애틋하셨다. 여성단체의 소식지 등에서 원고청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시는 것도 그런 까닭인 듯했다. 샘터사에서 발행하는 〈엄마랑 아기랑〉에 주신 글도 마찬가지였다. 읽은 지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과일을 잘 깎는 여성이 살림도 살뜰하게 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던 것 같다.

스님께 인사드리러 길상사에 갈 때는 주로 나 혼자였는데 그날은 안사람과 동행했다. 안사람이 스님을 찾아뵙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였다. 길상사 행지실에서 차담을 나눌 때는 길상사 주지스님이 항상 차를 우려내는 팽주(烹主)가 되었다.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갑자기 안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일러스트 · 정윤경

"무량광보살이 만든 다기를 왜 나한테 가져오지 않지요?"

"예, 다음번에 올 때 반드시 준비해오겠습니다."

안사람은 얼떨결에 다기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무량광은 스님께서 지어주신 법명이었다. 내가 무염이니 무(無)자 돌림으로 짓겠다고 무량광으로 지어주셨다. 안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다.

"사실은 진즉 스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했으니 되돌릴 수는 없었다. 안사람은 다관 1개와 찻잔 5개, 수구 1개를 세트로 맞추어서 포장지에 싸두었다. 안사람의 도자기는 김기철 선생 풍(風)으로 찻잔 이름은 '법정 스님 찻잔' 이었다. 김기철 선생이 스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만든 찻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였다.

어제 어떤 스님이 안사람의 찻잔을 보고는 술잔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고 갔다. 찻잔입술이 있는 까닭은 차를 천천히 마셔야 하기 때문. 술은 입안에 털어 넣듯 마시므로 굳이 술잔입술이 필요 없다는 것. 수긍이 가는 설명이었다.

아무튼 안사람은 자신이 만든 다기를 스님께 드렸는데, 어느 날 길상사를 다녀온 사람이 스님의 유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전해주었다. 안사람은 지금 만든 다기라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지만 정성을 다했다면, 선심초심(禪心初心)이듯 진실한 마음이 찻잔에 무심코 담겨 있지 않을까 싶다. 〈끝〉

행정수반 교체로 '一新' … 변화 기대 높아

2017 종단 결산

정부 등 전통문화 인식 문제
불교계 적극 대응하며 해결
승려 건강검진 제공 비롯해
미래세대 지원 위한 노력도



올해 각 종단 새 행정수반으로 조계종 설정 스님(왼쪽)과 태고종 편백운 스님(오른쪽)이 선출되면서 내년 불교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불자들이 많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017년 정유년, 세간은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이후 장미대선으로 분주했다. 불교계 역시 장자종단인 조계종, 제2종단인 태고종의 행정수반이 교체되면서 분위기를 일신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표지판 내 사찰명 삭제 논란,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따른 개신교 반발 등 세간의 전통문화 이해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펼쳐졌다.

조계 ·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올해 가장 큰 종단 이슈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행정수반 교체였다. 조계종은 지난 8년간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맡은 자승 스님에 이어 설정 스님이 제3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비록 선거과정서 후보들 간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열양상으로 치닫긴 했지만 선거 이후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신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포항 강진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철수에 앞서 목포신항을 방문하는 등 대사회 신뢰 쌓기에 나섰다. 종단 내적으로는 조계사 초하루법회서 대중법문을 하고,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기도 축원을 올리며 신심 증장에 앞장섰다. 현재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 인사를 단행하며 내년 사업을 대비하고 있다.

태고종은 도산 스님에 이어 제26대 총무원장에 편백운 스님이 취임했다. 편백운 스님은 △종단재정 정상화 △기초교육제도 개혁 △권역별 지방 초심원 설치 △사설사찰 보장 △독자적인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종단 정상화에 나섰다.

이처럼 한국불교 대표 종단들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내년 불교계의 혁신을 기대하는 불자들이 많다. 또한 내년 초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임기도 만료될 예정이어서 대형종단들의 변화된 모습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멸빈자 사면, 종단별 온도차

2015년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파동으로 촉발된 조계종 멸빈자 사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 종정 진제 스님이 사면에 대한 교시를 내리고, 중앙종회서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거듭 이월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사면에 대한 종단 구성원간의 이해도 달라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계종과 같은 사면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태고종은 종정 혜초 스님이 내린 특별사면령에 의거해 지난 11월 징계자 복권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태고종은 1970년 창종 이래 2016년까지 종단으로부터 멸빈 포함 각급 징계를 받은 종도들이 일제히 사면된다. 내년 1월 29일까지 사면복권 신청을 받는다.

정부 등 전통문화 인식 미흡 개선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문화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교계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 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국불교 명찰(名刹)들의 이름 등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침 개정은 10여 년 전에 이뤄진 데다 그동안 문제없이 표지판에 명기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 제1 · 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은 고속도로 안내판에 표시 가능해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조계종은 표지판 철거방침 철회와 지침 개정을 촉구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를 확대해도 부족한 마당에 있는 것도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철거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철거 잠정연기 결정을 내리고, 국토부가 도로표지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편 조계종이 세종시에 건립할 한국불교문화체험관도 한차례 홍역을 앓았다. 일부 개신교계 단체들이 '특혜' 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서 시비 예산 2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 이 논란은 조계종과 세종불교계가 적극 대응하고,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면서 해소됐다. 최종적으로 시의회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예산 20억 원을 확정하면서 논란은 사그라졌다.

진각종 창종 70주년 맞아

밀교종단 진각종은 올해 창종 70주년이라는 경사를 맞았다. 이에 '진각 100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진각문화사업단과 국제교화사업단을 신설하며 조직을 재편했다.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과 더불어 총인원 · 전승원 등을 중심으로 한 '밀교공원화' 를 추진 중이다. 특히 전승원에 공연장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상주공간을 제공하는 등 각종 문화사업 계획을 꾸려 제2의 종단 중흥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진각 100년 비전 선포식을 겸한 헌공불사를 봉행하고, 서울서 처음으로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조계종 승려복지 '건강검진' 제공

출가수행자의 수행 · 포교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인 건강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조계종이 동국대의료원과 함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승려복지회 · 전국비구니회 · 동국대의료원 3자 협약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비구니스님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건강검진서 2명의 스님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이어, 치료를 받아 실효성이 입증되는 등 눈길을 끌었다. 이에 3자 기관 · 단체는 건강검진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2015년 초 조계종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공사에서 처음 논의된 미래세대위원회가 약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마침내 출범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으로서 청소년 · 청년포교에 앞장서는 심산 스님을 중심으로 스님과 재가불자 등 전문가들이 뭉쳤다. 이들은 출범식과 동시에 청년불자들의 고민 듣기로 첫 행보를 펼쳤다. 청년불자들은 대인관계 · 취업 · 연애 등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불교계가 이를 귀 기울여 들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위원회는 당분간 이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섭 기자



범어사 11개 암자길, '부산 순례길' 선정

부산학연구센터, 종교 성지순례 코스 6選 정리

부산시민에게 쉼과 마음의 안식을 제공하고 종교 화합을 위해 마련된 부산 순례길에 범어사 암자 11곳과 백양산 삼사순례길이 선정돼 눈길을 끈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는 부산의 종교 성지순례 코스인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을 개발하고, 부산학 총서 3권 가운데 1권으로 펴냈다. 부산 순례길 대표 코스는 범어사 11개 암자 길과 백양산 삼사순례길, 천마산 홀리 로드, 순교자의 길, 선교사 미션 루트, 원도심 평화순례길 등 총 6선이다.

범어사 11개 암자 길은 약 12㎞이며 금정산에 위치한 계명암, 청련암, 내원암, 원효암, 대성암, 금강암 등 11곳이다. 아울러 백양산 삼사 순례길은 천태종 삼광사와 전통사찰인 선암사,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운수사를 찾아가는 산속 명상길이다.

부산 순례길 코스 개발 참여자는 박창희 스토리랩 수작 대표와 민병욱 부산대 국어교육과 교수, 성현무 지식 · 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박수인 도보여행가 등이며 지난 3월부터 부산 대표 종교 성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선정했다.

부산발전연구원 김형균 부산학연구센터장은 "부산 순례길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명상을 비롯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종교 간 화합과 소통을 상징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재입법 과세기준, 불교 특수성 무시”

조계종,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비판

“수행정진 자체가 출가 목적”
수행지원, 종교활동비와 달라
시행 10일 앞둔 일방적 결정
통과 시 헌법소원 등 조치도

기획재정부가 12월 21일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종교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종교인과세를 찬성해온 불교계 특수성마저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기재부의 재입법예고 발표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정진만을 추구하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분류해 신고하라는 기재부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계종이 기재부 발표에 이 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당초 기재부와 불교계 특수성에 대해 합의한 내용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스님의 경우 타종교의 성직자와는 달리 출가의 목적 자체가 수행정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은 소득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조계종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아 출가 이전에 사후 기증각서까지 받고 있어 수행과 교육·법계·공동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소득이 아닌 ‘수행지원비’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기재부 역시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지만 별도의 수행지원비 명목을 편성하기 어려워 종교활동비에 포함하자고 제안했고, 조계종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종교계와 협의 없이 갑작스레 시행령을 재입법예고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기재부의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좌스님들의 안거해제비를 비롯해 목욕비, 병원진료비, 학인스님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비용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조계종은 “참선·기도·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에게 사찰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소득’이나 ‘종교활동’도 아닌 그 자체가 승단을 유지하는 기본 목적임을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며 “출가한 승려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위한 비용까지도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이유로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조계종은 이어 “정부 조세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종단소속 사찰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발표로 인해 종단사찰과 스님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며 “나아가 종교인 소득신고를 위해 준비해왔던 조계종의 모든 종도 역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약 10여일 앞둔 시점에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은 조세정책 집행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책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돼야 한다. 종교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에 혼란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출가 독신 수행자라는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정책의 편향성을 보여준 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끝으로 해당 예고안이 아무 조치 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시 현 정부 종교정책이 특정종교에 편향된 것으로 이해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한편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예고는 이낙연 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라”는 언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를 추가하고,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소득명세서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중화합해 큰스님 가르침 계승”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취임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신임주지에 혜솔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12월 17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5층 법당에서 신임주지 혜솔 스님의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어찌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시기였는데, 대행큰스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부대중이 항상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지 소임을 맡은 혜솔 스님을 비롯해 대중 스님들이 화합하여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예전에 큰스님께 여쭈기를 ‘큰스님께서 안 계실 때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까’라고 하자, 자기 근본인 주인공 자리를 잡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고 하셨다. 앞으로도 진실하게, 승속이 따로 없이 사부대중이 함께한다면 모두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장을 받은 신임 주지 혜솔 스님은 “큰스님께서 이 터전에 법의 깃발을 꽂으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 어두운 마음에 불을 밝혀 주시고, 법의 감로수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일러주셨다. 또한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전(前) 주지이신 혜원 스님이 오랜 세월 도량을 외호하고 장엄하며 우리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다. 이 도량을, 그 속에 담긴 뜻을 다음 세대에게 잘 인계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시절이 아닌가 싶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혜솔 스님은 이어 “큰스님 가르침이 지속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혜수 이사장스님을 모시고 사제님들은 물론 국내 본, 지원 과 해외지원 모든 신도님들과 한마음으로, 미약한 힘이나마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스님들의 마음 넓은 성탄축하

올해도 어김없이 조계사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이 켜졌다. 예수님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구제중생을 위해 이 땅에 왔듯이 불교계도 종교화합의 의미를 담아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2월 18일 점등식에서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챙기고 살피신 예수님의 삶을 되새겨야 한다. 낮은 마음으로 함께 일구는 겸손과 양보의 미덕은 서로의 신뢰를 더욱 굳게 한다”고 강조했다. **글=윤호섭 · 사진=박재완 기자**

정부 해결 못한 대사회문제, 불교가 맡는다

조계종 사노위 3기 출범
위원장 혜찬 스님 선출

제주4.3 · 베트남 학살 다뤄
비정규 노동자 정기법회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20일 실천위원 13명을 위촉하고, 3기 출범을 알렸다. 위촉식 이후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실천위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3기 출범을 맞아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범위를 넓힌다.

사회노동위는 1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3기 실천위원 13명을 위촉하고 해인사 기획국장 혜찬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3기 실천위원으로는 혜찬 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진각 스님 △동국대 박사과정 고금 스님 △원주 황산사 도철 스님 △함양 백운암 주지 혜문 스님 △대구 묘광사 법상 스님 △마곡사 교무과장 우담 스님 △안성 석남사 총무 용주 스님 △서울불교대 박사과정 준오 스님 △권승복 前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문진 前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나라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집행위원장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사회노동위는 3기를 맞아 제주4.3사태 등 대단위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이 계획돼 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광화문 4.3사태 70주년 추모 행사에 사회노동위도 참가해 위령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사회노동위는 이와 관련, 최근 제주도 피해사찰 순례를 다녀오는 등 준비를 해왔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한 기도법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사회노동위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지만 정기적인 기도법회는 열리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문제도 다룬다. 베트남 희생자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위령재와 천도재를 음력 7월 백중에 봉행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심리상담을 진행하던 ‘도반’은 활동 범위를 넓힌다.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심리상담 해주던 방식에서 온라인 사업을 전개하며,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사업도 계획 중이다. 긴밀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회노동위는 조직 정비에도 나선다. 종령을 개정해 실천위원의 범위를 넓히고 부위원장도 2명 이상 선출할 예정이다.

사회노동위 3기 위원장 혜찬 스님은 “앞으로 여러 위원 스님들께서 애써주시길 바란다. 화쟁하는 모습으로 사회노동위가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다. 노동 문제, 사회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불교문화체험관, 세종시민에 원만회향”

조계종, 체험관 건립 입장 발표

일부 개신교계 반발로 잠시 난항을 겪은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과 관련, 조계종 문화부가 “세종시민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12월 19일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세종시민에게 원만히 회향하겠습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불교 전래 이래 1700여 년 동안 이어온 전통적인 수행의 공간이자,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보존되고 창조돼 온 공간,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조화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속에서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와 복지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체험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법적 대응을 진행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시비 20억 원을 포함한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호섭 기자**

2018년 대한불교조계종 신도기본교육 안내

■ **신도기본교육**
· 신도법 제14, 16조에 의거, 사찰 신도를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소양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신행교육과정이며 불자로서의 올바른 신행생활을 열어가는 기본교육 과정입니다.

■ **신도기본교육 대상**
· 발심품계(신도등록)의 신도를 대상으로 함
※ 발심품계(신도등록)자가 아닌 경우, 기본교육과정을 통해 발심품계(신도등록)자가 되도록 지도합니다.
※ 불기 2562(2018)년 부터 신도등록 접수 · 제작 업무 및 교무금 납부는 중앙신도회에서 시행 합니다.

■ **교육 교재 및 시간**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발간) · 사찰의 여건에 맞게 교육 (총 12시간 이상)

■ **강의 자료 제공**
· 포교원에서는 사찰 주지스님께서 강의하실 수 있도록「불교입문 강의계획 지침서」, ‘불교입문 강의 PPT자료’ 제공해 드립니다.

■ **교육 진행 방법**
· ‘불교입문’ 정규교과목 진행 (1주 1~2시간 등)
· 사찰 정기 법회 시간을 활용 (정기법회, 초하루 법회, 재일법회 등)
· 단기코스의 교육으로 진행 (1박 2일, 주말반 등)

■ **신도기본교육 기관**
· 조계종 등록 사찰 · 조계종디지털대학 · 지역사찰 연합으로 교육기관 개설 및 운영

■ **교육이수자 특전**
· 종단 인증의 품계 수여 – 행도품계 수여
· 사찰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으로서의 기본 자격 획득
· 신도전문교육기관 입학 기본 자격 획득

■ **행정절차**

사 찰	교구본사	포 교 원
기본교육과정 개설	교구차원의 기본교육 시행계획 수립	
기본교육과정 운영		
교구본사 보고 →	사찰별 기본교육 시행 보고서 접수	
교육이수자 관리		
행도품계 품서	포교원 보고	교구별 보고서 접수 후 행도품계 휘장 지원

※ 직할 사찰은 포교원으로 바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 포교 – 신도교육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포교원 교화팀 02)2011-1904**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지 홍

일 주 문



한국사찰림硏 후원의 밤

종수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스님은 12월 27일 오후 6시 서울 운니동 여유당에서 한국사찰림연구소 후원회원의 밤을 개최한다.



동지팥죽 나눔행사

돈관 영천 은해사 주지 스님은 12월 21일 영천시장에서 은해사 신도회와 함께 팥죽나눔행사를 개최했다.



3차 천일기도 회향

황운 보광선원 주지 스님은 12월 5일 3차 1천일 기도를 회향했다. 스님은 1989년 · 1997년 홍련암과 송광사서 1천일 기도를 회향한 바 있다.



제3회 산타스님 자비나눔

마가 자비명상 이사장 스님은 12월 25일 노량진 고시촌 일대에서 '제3회 산타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과 MOU

정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12월 11일 동국대서 동국대 불교대학원과 불교사회복지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해 스님에게 듣는 미래 불교 방향"

Interview

〈조선불교유신론〉 강의 나서는 혜룡 스님

한국불교硏서 1월 16일 강의
신행 혁신 교육 차원서 진행
"문제의식 발현, 신심 고취로"

"파괴는 모두다 없애 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구습 중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고쳐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유신을 잘하는 사람은 파괴도 잘하기 마련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유신은 낡은 관습과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변화와 개혁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바른 방법이 요구된다. 과거 100년 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쓴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바른 개혁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열린다.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부산 센텀 일심사 주지 혜룡 스님〈사진〉이 1월 16일부터 3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구도회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을 강의한다.

혜룡 스님은 강의 목적을 '바른 신행'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현재 집행부와 반 집행부의 의견 충돌 사이에서 불자들은 길을 잃습니다.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충돌 사이에서 불자들은 어느 의견이 맞는지 몰라 헤매고 고통 받습니다. 이번 강의는 바른 안목을 제시하고 불교 신행을 정립하도록 돕기 위해서 개최합니다. 불자로서 불교 발전을 위한 고민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때문에 자신의 신행이 왜곡되선 안 됩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1913년 구한말과 일제 초기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불교계의 역할을 제시하고 발전을 촉구하는 글이다. 책에서 만해 스님은 교육, 참선, 염불, 포교, 의례, 주지선거, 승려의 단결 등 불교 내부 문제와 사회 변화까지 통틀어 설명해두었다.

혜룡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불교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 회의를 가지고 외면하거나 개인 신행만 주력하며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본다"며 "성숙한 불자는 불교 발전을 위한 문제 의식도 가지면서 자신의 신행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 혜룡 스님은 해인사 지족암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를 수료했다. 하동 쌍계사 강사 및 학감, 교무국장, 구례 화엄사 강사, 학감을 역임했다. (051)781-0543

하성미 기자

동국대 유치원, 법인 이사장 표창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교육부의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에 선정된 동국대 부속유치원(원장 김혜순)에 표창을 수여했다. 자광 스님은 12월 20일 법인 이사장실에서 표창 수여식을 열고 김혜순 동국대 부속유치원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자광 스님은 "그동안 우리 동국대 부속유치원 구성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앞으로도 모든 일에 부처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8회 '대원불교문화상' 시상식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김정환)은 12월 20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8회 대원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문화상 부문별 당선작은 불교학술 논문 부문에 김한상(불교대학 소속) 박사의 '스리랑카 승가에서 아란냐까 전통의 정통성과 연속성' 불교학술 학위논문 부문에 민태영 박사의 '불교 경전에 나타난 식물 연구' 등이다. 8회째를 맞이하는 대원불교문화상은 2009년 대한불교진흥원과 동국대가 협약을 맺어 제정했다.

노덕현 기자

운문사서 법계문학상 시상식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12월 15일 올해 2회째를 맞은 법계문학상 시상식을 경내 선열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대상작은 이갑수 작가의 장편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선정됐다.

이갑수 작가는 "법계문학상을 계기로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얻었다. 앞으로 글 쓰는 작업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38명 배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자격증 수여



올해 사찰음식 전문조리사로 총 38명이 배출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제4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한 38명에게 자격증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문화사업단이 2014년부터 배출한 사찰음식 전문조리사는 총 18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단장 원경 스님은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시험에도 좋은 결실을 맺게 된 합격자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치사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신위숙 씨는 "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체험에 참가했다가 사찰음식에 매료됐다. 이후 꾸준하게 노력해 전문조리사 자격까지 갖추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으아~ 이젠 박물관에도 들이대"

조계종 불교중앙博, 가수 김흥국 씨 홍보대사로



가수 김흥국 씨가 오심 스님과 홍보대사 위촉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불가가수 김흥국 씨가 불교 성보 문화재 알림이로 나선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12월 20일 박물관 관장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김흥국 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위촉은 그간 홍보가 부족했던 것을 고민했던 박물관 측이 내놓은 홍보 전략 카드 중 하나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흥국 씨는 한국불교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김흥국 씨는 "홍보대사 제안에 불교 문화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불교 문화재 전시와 공연을 접목하는 문화행사에는 매우 공감한다. 불교 문화재를 알리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흥국 씨는 현재 대한가수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자신의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저소득 소외계층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정준호 "생명나눔 홍보 '가문의 영광'"

12월 20일 생명나눔본부서 홍보대사 위촉식



배우 정준호 씨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12월 20일 위촉됐다.

배우 정준호 씨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에 발벗고 나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20일 본부 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배우 정준호 씨를 2017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정준호 씨는 이번 홍보대사 임명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자랑스러움을 내비쳤다.

정준호 씨는 연예인 불우이웃돕기 봉사단체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부회장을 맡아 소외계층을 돕는 데 앞장섰다. 정준호 씨는 장기기증 서약서에 서명하며 "고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 사랑을 소중한 생명 기증 홍보하는데 쓰겠다"며 생명나눔이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나눴듯, 많은 분들에게 앞장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멋진 스타가 훌륭한 일 도와주셔서 든든하다. 장기기증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이식 대기자가 2만6천여 명에 육박한다. 생명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형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은 12월 17일 안양아트센터 대극장 안양홀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한마음음악회 '꽃이 핍니다'를 개최했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이 음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음악회 무대를 감상하며 합창단을 격려하는 내빈들.

선법가로 나눔 노래한 어울림마당

한마음선원, 12월 17일 한마음음악회 '꽃이 핍니다' 개최

1000여 대중 운집해 화제
전국 각지서 선법가 열풍
이웃종교계 참여, 화합 눈길

어느 계절보다 따뜻한 정이 필요한 겨울, 한마음선원이 이웃을 돕고 자기수행을 돌아보는 음악회를 마련해 지역사회에 훈기를 불어넣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12월 17일 안양아트센터 대극장 관악홀에서 이웃과 나누는 한마음음악회 '꽃이 핍니다'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등 한마음선원 스님들과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등 재가불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 원로의원 수현 스님을 비롯해 안양의왕군포사암연합회장 성무 스님, 삼선포교원장 지광 스님,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묘순 스님, 용화사 주지 연규 스님, 이필운 안양시장, 이종걸 · 이석현 국회의원,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김대영 안양시의회의장, 최대호 前안양시장, 홍삼식 만안구청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된 합창제인 만큼 공연장 앞에는 나눔 보시함이 설치됐으며, 선원 대중들의 보시행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이번 행사의 속뜻은 일체의 생명들이 속히 한마음 밝히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스승이신 대행 선사께서는 선법가를 만들어 노래로 전하게 하시면서 '마음의 도리로 해서 진실하게 그 노래를 부를 때, 우주 법계에 두루 같이 그 음파가 돌아간다'고 하셨다. 이 뜻이 한마음음악회를 통해 이웃과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유생 무생한 인연도 빠짐없이 내면의 소식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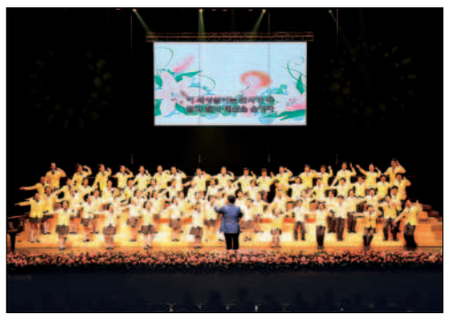
스님은 이어 "선법가를 부르게 하신 그 뜻을 깊이 헤아려서 자기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실천하여 조금이나마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톨릭 수아비스 합창단과 안양 · 의왕 · 군포 불교사암연합회 합창단이 함께 참여해 종교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안양 · 의왕 · 군포 불교사암연합회장 성무 스님은 "노래는 혼자 부르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더불어 하는 합창은 더 큰 울림과 환희 감동을 준다"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맞추는 합창은 배려, 공감, 소통, 협력이라는 마음가짐이 동반된다. 오늘 '이웃과 나누는 한마음음악회'는 합창의 의미처럼 나와 이웃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다운 불국정토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수아비스 합창단 영적동반자 가톨릭 예수회 정구평 신부도 "우리가 자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의 따스한 여운과 벅찬 감동이 각자의 삶의 여정에 하나의 빛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모든 벗님들에게 언제나 기운과 위로가 동반되길 기도한다"고 종교를 넘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장 앞에는 소외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함이 설치됐다.


어린이선법합창단의 공연 모습.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은 "그동안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은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올해는 연합합창단과 한 무대에서 음악회를 개최해 지역불교계와 교류, 이웃종교와 소통의 마음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다"며 "올해 처음으로 선법가 가사를 영어로 번역한 영어선법가가 해외지원 영상과 청년들의 합창으로 새롭게 무대에 올려졌다. 선법가를 통해 세계인과 더불어 함께 마음의 도리를 배우고 익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 합창제서는 김세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혼성 선법합창단의 '원통 속을 벗어나려면' '한 그릇의 물 맛', 어린이선법합창단의 '나는 반짝이는 우주' '작은 골목은 내 우주' '마음밭에는' '태산을 옮기자' '내 마음의 물방울', 한뿌리선법합창단의 '삼세심을 전달하니' '선법가는', 청년선법합창단의 '부처님 계신 곳'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전국 거사연합선법합창단의 '한마음의 밝은 등불' '아름다운 강산', 청년선법합창단의 자이브 댄스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졌다.

또 2부에서는 안양의왕 불교연합합창단의 '그 마음 그대로' '인생팁', 보살선법합창단의 '꽃이 핍니다' '도라지 타령' '한강수타령', 가톨릭 수아비스합창단의 'Sanctus' '공놀이나 하여 보세', 선법합창단과 청년선법합창단의 '내가 무슨 걱정을 하랴' '돌장승 우는 소식' 등이 대중들의 환희심을 자아냈다.

이날 공연한 한마음선원청년회 박훈 씨는 "청년 법우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전문가로 춤을 추거나 공연하는 이들이 아니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라는 이유 하나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했다"며 "대행 큰스님은 상대를 볼 때 나와 같이 볼 수 있는 마음,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느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공연을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보는 마음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멀리 대구지원에서 올라와 이번 전국 거사들의 연합공연에 참여한 조종민 씨는 "2011년도 합창제에서 대행 큰스님이 '잘해서 하늘로 뜨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당시 처한 위치에서 열과 성을 다하면 자유인이 된다는 말씀이셨다. 연합공연이라 짧은 준비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참여도 눈부셨다. 어린이선법합창단의 김민성 학생은 "큰 무대지만 하나도 떨리지 않았다. 학교 끝나고 연습한 만큼 열심히 노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연은 어린아이부터 일흔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함께 즐기는 자리였다.

지난 합창제에서 공연한 한마음선원 청년회 권영덕 씨는 18개월 아이를 안고 공연을 보러 참석했다.

권 씨는 "객석에 있지만 대중들 앞에서 선법가를 부른 지난 합창제의 감동이 살아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합창제의 뜻이 우리 아이에게도 전해져, 아이가 자라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明暗 교차 한국불교… 내년엔 빛날 일만을

현대불교 10대 뉴스

불교계는 불기 2561년의 다사다난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각 종단 수장 선출을 비롯해 다양한 일이 있었던 불교계는 대사회적인 역할과 함께 불교 교세 회복에도 앞장섰다. 2017년 한해의 굵직한 10대 사건을 본지가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明暗 조계종·태고종 새 총무원장 선출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수장이 자승 스님에서 설정 스님으로 8년 만에 변경됐다. 덕숭총림 방장 출신의 어른을 모셨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은 결코 작지 않았다. 종단 외적으로 전국선원수좌회를 비롯해 종단개혁 연석회의,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종권분산과 직선제, 재정투명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선거과정서 설정 스님에게는 학력 논란 · 재산 및 은처자 의혹이, 수불 스님에겐 금품살포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혹 해소를 비롯해 대탕평책을 중심으로 한 종단 화합이 과제로 남았다.

제2종단 태고종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 간의 폭력사태로 인한 상처를 딛고 편백운 스님을 신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편백운 스님은 2위 능해 스님을 단 3표차로 제치고 행정수반이 돼 종단 내 갈등 해소와 대외 위상 회복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明 '부처님오신날' 공식 명칭돼

내년부터 공휴일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국무회의서 공휴일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불교계 등에서 석가탄신일 공식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사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며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는 취지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부처님오신날' 명칭 변경은 불교계의 숙원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천태종 등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공식적인 부처님오신날로 맞이하게 됐다. 종단은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明 종교인 과세 대비로 분주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종교인 과세 준비로 불교계가 분주했다. 조계종은 관련 TFT를 구성하고,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에 대한 구분을 비롯해 중앙서 업무를 담당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일선사찰 담당자 전체 교육을 실시해 종교인 과세에 만전을 기했다. 태고종 역시 내년 3월 이내에 종단차원의 지침서를 제작해 전국단위 교구종무원에 배포, 행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천태종은 과세 대상자가 극히 적어 특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진 않았다. 진각종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단 방침을 정하고, 교육을 통해 대비에 나섰다.

明 韓中日 불교우호교류 20년

올해는 한 · 중 · 일 3국의 황금유대 2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였다. 3국의 본격적인 교류는 1993년 당시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의 상설회의 기구 구성 제안에 따라 시작됐다. 이후 3국은 매년 돌아가며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불교인재 양성과 학술교류, 생명 · 평화 등을 주제로 뜻을 함께해왔다.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한국대회 차례로, 서울 봉은사서 전쟁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각국 불교 지도자들이 20년간 이어온 황금유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 측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해 목발우를 직접 제작해 중국과 일본 불교지도자들에게 발우공양 체험을 제공하고, 발우를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明暗 출가 절벽… 종단 첫 출가자 모집

가속화되고 있는 출가자 감소에 출가 문화도 바뀔 것인가. 한 해 출가자 200명 선이 무너진 2016년 이후 출가자는 150명 선을 유지해왔지만, 내년에는 이마저도 위태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종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출가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홍보까지 나섰다. 조계종 교육원은 내년 1~2월을 중심으로 출가를 독려하는 홍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 3월 사미 · 사미니 수계를 준비 중인 행자는 약 80명 정도. 평균적 중도퇴사율 27%를 감안하면 실제 수계 받을 인원은 60명 정도에 그친다. 2년 만에 한해 출가자 150명 선도 무너진 것이다.

이에 현 출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행자들에 대해 교육보다 사찰 인력으로 활용하는 절집 문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暗 잇따른 승려 성추문 '얼룩'

정유년은 중진급 승려들의 성추문으로 얼룩진 해였다. 먼저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 산내암자 고불암 감원 J스님이 여종무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해인사는 J스님에 대한 산문출송을 결의하고, 고불암을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성평등불교연대의 성명 발표와 조계종 호법부의 담화문 발표 등도 이어졌다.

칠곡 송림사 주지 H스님의 종무원 성폭행 파문은 이보다 심각했다. 언론보도를 비롯해 공중파에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조계종단 내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컸다. 또한 H스님이 사건 보도 직후 환속제적원을 제출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종단차원 징계가 전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는 해결되지 않고 해를 넘겨 지속됐다. 다만 최근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하면서 내년 1월에 열릴 최종선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明 Z세대 포교 논의 활발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SNS와 인터넷 동영상 미디어를 접하고 사는 젊은 세대를 칭하는 신조어다. 불자인구 감소 국면에서 미래세대 포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이들 Z세대 포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발 하게 이뤄졌다.

가장 먼저 조계종 포교원이 7월 4일 미디어 전법 연찬회를 연데 이어 유튜브 속 불교 콘텐츠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조계종은 새해 미디어 전법에 주력할 예정이다. 불교언론문화상에서도 본지가 연속기획한 '이젠 Z세대 포교다' 기획을 비롯해 'I Go 절 RUN'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산 씨가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明 '4차 산업과 불교' 논의 눈길

올해 불교학계 이슈는 단연 '원효'와 '4차산업'이었다. 특히 4차산업은 현 사회에서 가장 긴밀히 다뤄지는 새로운 화두로서 종교계가 이를 논의한 것은 최초였다. 이를 주도한 것은 한국불교학회였다. 한국불교학회는 생소한 '4차산업'을 연구 · 연찬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스마트 시티 △가상 및 증강현실(VR · AR)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2~3월까지 '4차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개회식에만 8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했으며, 당시 학술대회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참여자가 몰려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한국종교학회와 〈불교평론〉 등에서도 4차산업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논단을 진행키도 했다.

明 모바일 앱 등 새 전법 매체 개발

불교계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수행, 참여형 어플리케이션이 선보였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수행 공유나 상담 기능을 첨가해 세대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조계종 포교원이 11월 5일 발표한 '붓다로살자' 모바일 앱은 참선, 염불, 독경, 사경, 주력, 명상, 108배, 개인수행의 다양한 선택수행과 나의 수행기록 기능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속 명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을 갖췄다. 이와 함께 4050세대, 청소년을 위한 마음거울 108앱, 불교계 방송 콘텐츠를 모바일로 즐기는 BBS불교방송 통합앱 등이 개발돼 선보였다.

明 포항 지진 피해자에 앞장서 위로한 불교계

5.4규모의 강진이 11월 15일 포항을 뒤흔들었다. 학교와 길목 건물들이 무너져 역대 최초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포항으로 긴급구호단을 파견해 구호물품 · 심리상담 지원부스를 운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강진 발생 다음날인 11월 16일 주민들이 대피해 지내는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총무원장 취임 후 첫 대외활동이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11월 19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태고종 사찰을 방문했다. 이 외에도 불교계의 위로 방문, 위로금 전달이 끊이지 않았다.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전법 활성화로 불교 중흥 박차

2017년 결산 신행·포교

2017년 한 해는 불자인구 300만 감소의 국면 속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포교 방안이 모색된 해였다. 신도들의 신심을 증장시킬 뿐만 아니라 비불자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Z세대 등 청년포교 관심 이어져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Z세대에 대한 포교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이다.

본지가 연속기획한 '이젠 Z세대 포교다' 기획은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관심을 모았으며, 제25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과 불교기자협회 대상을 수상했다. 고무적인 것은 '유튜브'를 비롯한 모바일 미디어 내 불교 콘텐츠 부실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획으로 관계 부처에서 연찬회를 열고 미디어 전법 포교에 대한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광화문서 울려 퍼진 '금강경' 독송



4월 5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만여 불자들의 '금강경' 합송이 울려퍼졌다. 불교계 최초로 불자 위상 제고 및 신심 증장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우천 중에서도 수만 명의 불자들이 모여 장관을 연출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 개최한 금강경 독송정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다.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상경한 불자들은 묵묵히 40분간 〈금강경〉을 독송했다.

신행혁신 운동 박차, 대중공사 열려

또 조계종에서 기존 기복문화에서 탈피하고 수행과 자비실천으로 불자들의 신행을 바꾸고자 도입한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대중공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9월 3일 광주전남 불교지도자들이 모여 붓다로살자 대중공사를 열었으며, 지역 불교 교세 약화를 탈피하기 위해 가정법회 운영, 공동재원으로 포교당 마련 등을 결의했다. 11월 11일에 열린 의성 지역 붓다로살자 대중공사에서는 신도청 포교당 건립을 비롯해 농촌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 돌파를 위한 포교대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대불련 지회 복원 '성공적'

올해 창립 50돌을 맞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는 대불련 지회 복원에 나섰다. 강원지역 4개 대학 불교학생회를 복원한 바 있다. 1966년 창립된 대불련 강원지부는 강원대, 춘천교대, 춘천 성심대, 한림대 등 4개 대학으로 구성돼 있지만 강원대를 제외한 3개 대학에 불교학생회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불련 총동문회 동문들의 모교 지회 복원 노력이 이어졌으며 5월 11일 한림대 지회 재창립 법회를 시작으로 6월 3일 춘천성심대와 춘천교대 불교학생회까지 복원, 춘천지역 대학에 불교학생회를 복원했다.



붓다로살자 모바일로 전한다

이와 함께 불교계에서는 청년 세대들의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선보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5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행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붓다로살자' 모바일 앱을 공개했다.

'붓다로 살자' 신행 앱은 8가지(참선, 염불, 독경, 사경, 주력, 명상, 108배, 개인수행)의 다양한 선택수행과 나의 수행기록을 주요 테마로 갖추고 있다.

군포교 진흥, 새로운 시작



7월 27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이 · 취임식을 시작으로 조계종 군포교가 일대 혁신을 시작하고 있다. 4대 군종교구장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선묵 혜자 스님은 취임식에서 미래 군포교 50주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히며 군포교 청사진을 제시했다. 108평화순례단이 11월 5일 육군보병사단 제1사단 호국 전진사에서 첫 순례를 시작했으며 '평화의초'도 선보였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서는 군장병들의 신심 증장을 위해 평화의초를 보급할 계획이다.

"좋은 강의·스님과 대화… 나를 배워가요"

조계종 교육원, 14~16일 전등사서 '산사청춘캠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에게 지금 시기는 마음이 들뜬 시기이다. 이들에게 전통 산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청춘캠프가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강화 전등사에서 '수험생을 위한 산사청춘캠프(이하 청춘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청춘캠프에는 17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전등사 포교국장 태정 스님을 비롯해 은산 · 원영 · 승천 스님 등이 동행법사로 참여했다.

청춘캠프는 수험생들에게 단순한 불교문화체험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캠프 참여 학생들은 "특강과 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간 강화 전등사에서 '수험생을 위한 산사청춘캠프'를 개최했다. 교육원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제공=조계종 교육원

신성민 기자

4번의 넘어짐… 서울형MC로 5번째 도약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⑨ 서울 중구 '신나는기획' 조승환 대표



조승환(57)씨는 40대 후반의 나이에 금쪽같은 막둥이를 얻었다. 삶의 빛줄기처럼 내려온 이 아이가 심장이 안 좋단 사실을 알았을 때, 아이는 겨우 6개월이었다. 당시 아이는 태아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던 것이 늦게 발견돼 치료가 시급한 상태. 조 씨는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었다. 아이의 치료비로는 천문학적 금액이 요구됐다. 이 와중에 사업은 여러 번 엎어졌다.

이런 고충 속 병원과 기업 등의 도움으로 아이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어린 몸으로 심장수술을 받았던 아이는 이제 다음 달이면 11살이 된다. 조 씨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며 이젠 뛰어 다닌다"고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미 조 씨의 사업은 여러 번 꺾였다. 힘든 상황은 십 년간 지속됐다. 그래도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종업계에 35년간 종사하며 갖춘 기술력, 단골 거래 업체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4번의 실패 후, 5번째 도약이었다.

조 씨는 사회연대은행에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하 서울형MC)을 소개받았다. 조 씨는 서울형MC를 통해 경영개선자금 1,400만원을 대출받아 '신나는기획(서울 중구 위치)'의 지속적인 제품 ·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조 씨는 경기침체에도 한복금은박 등 기술을 개발하며 상품에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운영 중이다.

"가게를 운영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서울형MC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보다 낮은 이자율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경쟁업체도 많고, 경기침체가 지속돼 걱정이지만, 이젠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매출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조 씨는 서울형MC의 도움을 받을 무렵 주위 분들의 도움도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 대출받은 자금과 주변의 도움으로 각종 샘플을 제작하고 물품을 구입하며 기술을 더욱 연마했다. 여러 상황 속 수 많은 실패에도 조 씨는 꿋꿋이 버텨 온 것이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인내심을 강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데는 인내심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마음을 다스리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다스리다 보니 서울형MC를 알게 됐고, 지금은 희망찹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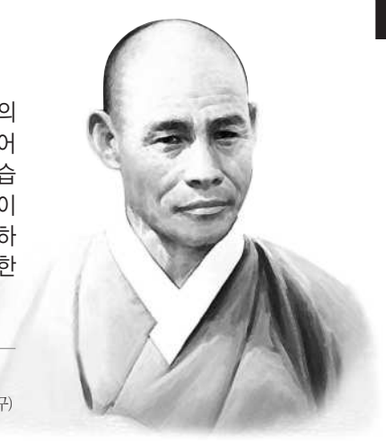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한국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출재가 불자의 필독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강의

100년전 주창하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개혁정신, 지금 다시 필요합니다!



삼국시대 이래 1700년을 이어 온 불교가 불자의 감소로 대한민국 제1종교의 위치를 상실하였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교개혁은 고함 지르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가 이렇게 된 원인과 과정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해결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백 년 전에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촉구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저술입니다. 한국근대불교를 깊이 연구한 혜룡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불교의 개혁과 신행방향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강사 혜룡 스님 약력
- 해인사 지족암 일타 큰스님 제자로 출가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박사 수료
- (반야참회) 저자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한국 근대불교 개혁운동 연구)
-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에서 강사, 학감, 교무국장 등 역임
- 現 부산 센텀일심사 주지



▶대 상 :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출 재가 불자
▶개강일시 : **2018년 1월 16일(화) 저녁 7시** (첫날 공개강의)
▶장 소 :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구도회 (종로3가 소재)
▶교육기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 12주 (3개월 과정)
▶수 강 료 : 20만원 (3개월, 교재비 별도)
▶문의전화 : 010-5154-8298

석굴암, 실크로드 종점서 나투신 불국토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㉓ 신라의 걸작 토함산 석굴암

인도에서 출발한 석굴사원. 계속 동쪽으로 진행하다보니 중국대륙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렀다. 대륙의 끝,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대륙의 끝에서 장쾌한 대미(大尾)의 결정판을 이루었다. 석굴사원의 길은 신라로 이어졌고, 그 종점은 바로 토함산 석굴암이다. 8세기 통일신라의 위대한 걸작이다. 김대성의 발원에 의해 난공사는 시작되었지만, 김대성이 죽자 국가가 완공했다는 신라의 자존심이었다. 신라 문화의 절정에서 이룩한 쾌거이다. 성덕대왕신종 같은 걸작이 나온 시대와 함께한다.

토함산 석굴암은 인도나 중국의 석굴과 크게 다른 특징 하나가 있다. 인도와 중국의 석굴은 천연 암벽을 파고들어가 만든 석굴이었다. 모래 성분이 많은 돌이어서 그만큼 파기 좋았다. 하지만 단단한 화강암의 나라 신라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토함산 석굴암은 인공석굴이다. 즉 목조건축물을 세우듯 돌을 일일이 깎아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이다. 전방후원(前方後圓) 형식으로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도 12자(尺)라는 기본 척도를 원칙으로 하여 비례의 극치를 보였다. 무슨 말인가. 토함산 석굴암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인공의 축조 석굴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 자리일까. 어차피 바위산을 파고들어 간 석굴이 아니라면, 토함산 높은 자락에서 거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석굴암 본존상의 시선과 마주하는 곳은 동해의 입인 감포이다. 바로 신라 통일의 영주인 문무대왕의 해중릉이 있는 곳이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바다 속의 왕릉이다. 대왕암 곁에 감은사가 있고, 오늘날 폐허의 절터에 신라 쌍탑이 눈길을 이끌고 있다. 토함산 서쪽에는 불국사가 있고, 그 곁에 문무왕의 화장터인 낭산(狼山)이 있고, 그리고 서라벌 시내로 이어진다. 토함산은 신라인의 성지였다. 특히 석굴암 자리는 요내정(遙乃井)이라고 불린 샘물이 있었다. 바로 석탈해 사당의 자리이다. 석굴암은 요내정 위에 건축되었다. 신라 성지의 조형적 실현이다. 그래서 바위산도 아닌 바로 그 자리에 석굴암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신라 석굴암은 상징성의 집적이었다. 돔 형식의 천정조차 돌의 부재는 모두 108개로 이루어졌다. 108번뇌의 상징이다.

이 대목에서 커다란 의문의 하나는 석굴암의 조형적 족보이다. '돌출', 그렇다, 전무후무한 독존이다. 한마디로 석굴암 이전에 석굴암 없었고, 석굴암 이후에 석굴암 없었다. 미술사는 인생과 같아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보이면서 진행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성장기, 절정기, 노쇠기 같은 과정을 보인다.

하지만 석굴암은 전후의 과정을 생략하고 절정기의 화려한 모습, 그 하나만 보여주고 있다. 무슨 까닭일까. 나는 해답의 하나로 실크로드의 산물로 믿고 있다. 동서문화 교류의 현장인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의 종점에서 집대성한 문화예술의 결정판, 그것이 석굴암이다. 간다라 문화 이후 수당(隋唐)문화의 결정체가 삼국시대를 거친 통일신라 문화와 결합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요즘 표현처럼 국제 컨소시엄의 결정판이다.

석굴암 본존상은 항마촉지인의 좌상이다. 이와 같은 형식은 어디에서 연유했을까. 과연 모델이 있었을까. 있다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인도, 그것도 붓다가야이다. 석존께서 깨달았던 현장, 바로 그곳이다. 깨달음의 현장 붓다가야. 그곳에 정각(正覺)의 불상 한 분이 앉아 있다. 신라를 비롯한 중국의 그 많은 구법승들이 찾았던 현장이다.

구법(求法) 인도여행을 간 중국의 구도승은 많았다. 그 가운데 〈불국기(佛國記)〉의 법현 스님은 5세기 초에 인도여행을 했다. 하지만 〈대당서역기〉의 현장법사나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의 의정(義淨) 등은 7세기 중엽에

신라 문화 절정서 이룬 쾌거
中 석굴과 다른 인공적 축조
전후 없을 불교 예술 결정체
겹쳐진 오른 2,3번째 손가락
세계 유일의 상징성이 표현돼

인도 체험을 했다. 특히 의정의 책에는 56명의 인도 구법여행자를 기록하고 있다. 활발한 실크로드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인도 왕래는 자연스럽게 불교미술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역경(譯經)의 대가 현장법사는 인도에서 귀국할 때 불경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불상도 모시고 왔다. 그것도 인도 각 지역의 불상이어서 흥미롭다. 의정은 '금강좌(金剛座) 진용상(眞容像)'을 가지고 왔는데, 이를 마하보리사 정각상(正覺像)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만약 이 같은 추정이 맞는다면, 토함산 석굴암 본존상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두게 한다. 당나라 시절 즉 7세기 중반, 그러니까 토함산 석굴암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 이미 석굴암 본존상과 같은 도상이 극동아시아 지역에 퍼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나라 황실의 칙사(勅使) 왕현책(王玄策)은 여러 차례 인도여행을 했다. 왕현책 일행 속에 화가 송법지(宋法智)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마하보리사의 불상을 묘사했다. 왕현책 일행의 정각상 그림은 당나라의 장안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 때 왕현책은 인도 불상 등 '불교미술'을 기록한 책을 짓기도 했다. 인도미술의 본격적 소개의 계기라 할 수 있다. 하기야 용문석굴 빈양동에 왕현책 발원의 기록도 남아 있다.

붓다가야를 모사해 온 당나라는 그것을 석굴사원에 활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전(東傳)한



경주 토함산 석굴암 본존불의 모습. 세계에도 어디 없을 인공 석굴 사원이다. 이는 실크로드의 종점에서 집대성된 문화예술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

석굴사원의 역사, 그 장쾌한 결정체가 토함산까지 이르렀을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토함산 석굴암은 국제적 최고의 기술과 정신을 담보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라의 개방적이고도 적극적인 국제 감각에 바탕을 둔 결과이다.

토함산 석굴암의 본존상은,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에 기술되어 있듯, 붓다가야 정각상과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크기의 불상이다. 바로 정각의 순간을 형상화한 깨달음의 실체이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이 대목에서 경악한다. 명품은 음미할수록 맛을 낸다. 세계 최고수준의 조각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석굴암은 종교적, 사상적, 과학적, 예술적으로도 최고수준이다. 그래서 나는 석굴암 예찬으로 이런 표현을 한 바 있다. "만약 한반도가 침몰된다면, 그래서 단 한가지의 아이템만 건지게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토함산 석굴암을 건지겠다." 석굴암에 보내는 예찬이다.

하지만 석굴암과 첫 대면할 때, 나는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석굴암 기행이라는 단원이 있었다. 교과서에서 이르기를, 석굴암 본존상은 따스하고 맥박이 뛴다고 했다. 중학교의 가을 수학여행은 경주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석굴암 안에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관광객들은 석굴암 내부를 출입할 수 있었다. 나는 본존상을 살짝 만져보았다. 하지만 교과서의 표현과 달리 불상은 차가웠다. 웬 맥박? 친구들은 떠들면서 장난을 쳤지만 나는 좌절을 안았다.

성장하여 나는 석굴암 앞에 정좌했다. 석굴암은 무엇 때문에 걸작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의문을 해결해 줄 문헌자료는 없었다. 신라시대의 역사 책 한 권 반반하게 남아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일제 식민지 시절과 1960년대의 '복원공사'는 석굴암 이해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석굴암 논쟁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원형논쟁이 그것이다. 논쟁 가운데 하나는 본존상의 이름이다. 석가상이냐 아미타상이냐, 등등. 혼란 속에서 석굴암 연구는 이어졌고, '드디어' 석굴암 본존상과 붓다가야의 정각상은 같은 모습이라는 논고도 나왔다. 그렇다면 석굴암 본존상은 정각상일 수 있다. 깨닫는 순간의 모습. 그 거룩한 순간의 조형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깨달음의 순간은 이런 모습일까. 모든 종교미술은 종교 도상학에 의거하여 조형화된다. 그래서 불경의 가르침대로 불상을 조성해야 한다. 바로 32상 80종호이다. 불상의 모습을 문장으로 규범화했다. 작가 마음대로 불상을 만들 수 없다. 불상의 명호(名號)를 알려주는 장치 가운데 하나로 수인(手印)이 있다. 손의 자세에 따른 구별법이다. 석굴암 본존상은 항마촉지인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세계 어느 곳의 불상을 보아도 있지 않은 특징 하나가 있다. 이 대목에서 역시 나의 체험을 반추하게 한다. 어느 날 나는 본존상 앞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는지 정신이 흔미해졌는가 보다. 석굴암은 무엇일까, 고심하고 있는 청년을 위해 부처님은 '드디어' 따듯한 손길을 내려주었다. 부처님은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아, 겹쳐진 손가락!

석굴암 본존상은 오른 손을 아래로 향하면서 두 번째 손가락을 세 번째 손가락 위로 포개놓았다. 바로 겹쳐진 손가락이다. 깨달음의 법열(法悅)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깨닫는 순간의 에너지가 손가락 끝으로 모아졌는가 보다. 세계 유일(?)의 상징성이다. 신라의 조각가는, 아니 신라인은 이렇듯 창의성 있게 석굴암을 만들었던 것이다.

통일신라의 자신감에 넘치는 문화예술은 '겹쳐진 손가락'을 만들 수 있었다. 실크로드의 종점이자 출발점인 신라. 토함산 석굴암의 가치는 세계적이다. 나는 이런 내용을 장편시집 〈토함산 석굴암〉으로 압축한 바 있다. 오늘날 석굴암의 존재가 너무 묻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했다. 아, 토함산 석굴암! 〈끝〉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유앤아이치과
02.6204.2275
1등 임플란트, 오스템!
75 만원
OSSTEM IMPLANT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0-1,
남도빌딩 6층
(3호선 압구정역 4번출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 – 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불교학 원효 · 4차산업 연구 논의 '활발'

문화재 不通 정책 · 부실 보전 등 '비판'

2017 학술 · 문화재 결산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부터
4차산업 혁명까지 학술 '호재'
대행선연구원 창립 첫 학술대회

불통 문화재청, 불교계와 갈등
도난 성보 환수는 '현재진행형'
위례 보존센터 설립 첫 삽 성과



지난 8월 24일 첫 삽을 뜬 위례 불교문화유산센터의 내부 조감도. 최초 성보 문화재 종합병원이 될 센터는 괘불을 보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될 전망이다.



대행선연구원이 지난 5월 19일 개최한 첫 학술대회의 종합토론 모습. 이날 학술대회에는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불교학회가 12월 2~3일 개최한 '4차산업과 불교' 주제 발표 전경. 개최식에만 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강의실엔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2017년 불교학계와 문화재계는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다. 학계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이라는 큰 호재가 있었고, 사회적 이슈가 된 4차산업을 불교와 접목해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화재계는 갈등과 성과 사이에서 온도차가 확연했다. 도난 성보 환수와 위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첫 삽을 뜨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문화재청과 조계종의 갈등이 2017년 시작부터 나타났던 해이기도 했다.

원효 · 4차산업이란 '쌍두마차'

올해 불교학계는 '원효'와 '4차산업'이라는 두 가지 대형 이슈가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관련 대형 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이 3월~ 6월 사이 한 · 중 · 일 3개국을 순환하며 개최한 대규모 국제학술세미나였다.

'원효 스님'을 주제로 한 · 중 · 일 3국을 순환하는 대형 학술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효 스님에 대한 학술적 논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각의 원효 스님 관련 논문을 공모해 수상 논문들을 중심으로 5월 12일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선진규)와 화성문화원(원장 고정석)은 지난 4월 22일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를 열고, 원효 스님의 오도처가 당항성(現 화성)이라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상반기가 '원효'에 집중됐다면 하반기 학술 이슈는 단연 '4차산업'이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한국불교학회였다. 한국불교학회는 생소한 '4차산업'을 연구 · 연찬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스마트 시티 △가상 및 증강현실(VR · AR)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2~3월까지 '4차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당시 학술대회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참여자가 몰려 눈길을 끌었다.

대행禪 연구 본격화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한마음선원 창건주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첫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8월 창립된 대행선연구원은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 3층 대강당에서 '대행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행선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前동국대 역경원장 월운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학원 이사 법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해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선원 문도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행선연구원은 2020년까지 대행선의 학술적 이론을 닦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온탕, 냉탕 오갔던 문화재계

문화재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던 한 해였다. 2017년의 시작은 문화재청의 불통 행정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은 지난 1월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 문화재청은 관료조직에 안주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등 소통에 취약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문화재청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연구용역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반대해왔던 환경단체의 연구소가 맡았으며, 연구 역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포진돼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본지를 비롯한 교계 언론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문화재청은 '문제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해 문제가 됐다. 첨예하게 이어져 오던 갈등은 결국 지난 3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문화재 행정들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남 미황사 천불도가 부실 복원됐다고 알렸다. 또한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 보험 미가입 · 방재시설 부실 등도 문제가 됐다.

문화재 행정에 대한 문제와 갈등은 많았지만, 불교계 자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도난 성보 환수를 위한 사업들은 꾸준히 이뤄졌다. 1989년 도난됐던 부여 무량사 금동불을 비롯해 1988년 경북 고성 옥천사에서 도난됐다가 미국 경매 시장에 출품됐던 나한상도 조계종과 정부의 노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불사가 첫 삽을 뜬 것도 주요한 성과다. 지난 8월 24일 기공식을 가진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3,17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된다. 국고와 자부담을 포함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불사로 오는 2019년 완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대형불화'인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처리하는 기관으로 계획됐다. 현재 한국에는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 하지만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현재 가장 큰 괘불인 보은 법주사 괘불탱(16m)을 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완공될 경우 지정뿐만 아니라 비지정 불교 문화재, 일반 성보까지 진단, 보존처리 등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대산사고본 실록 · 의궤 복제본 기증

문화재청 · 평창군, 22일 월정사서 기증 협약식



일제강점기 당시 반출됐던 월정사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복제품으로 월정사로 돌아갔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12월 22일 낮 12시 30분에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오대산사고본(五臺山史庫本)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복제본 기증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기증식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월정사 오대산사고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인 '오대산사고의 기록문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특별전'에 오대산사고본(五臺山史庫本)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복제본을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 반출돼 1932년 경성제국대로 이관됐던 실록(27책)과 함께 지난 2006년 일본 도쿄대로부터 환수한 실록(47책) 등 총74책의 실록과 2011년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환수한 의궤(167책)중 26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복제 사업을 진행했다. 앞으로 제작하게 될 조선왕조의궤 복제본도 차례로 평창군에 기증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에 자리한 오대산사고(사적 제37호)는 임진왜란 이후 건립된 조선 후기 4대 사고 중 하나이다. 오대산 사고에 보관 중이던 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 2006년(실록)과 2011년(의궤) 국내로 환수됐다.

이번 기증에 대해 평창군은 "복제본의 관리단체를 월정사로 지정하고 복제본을 오대산사고 전시관에 전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기록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청 누리집, 새 모습으로 단장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문화재와 관련된 정책소식, 행사안내, 활용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누리집(www.cha.go.kr)을 새롭게 개편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화재청 누리집은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대표 매체로서 메뉴별 이용현황 분석을 거쳐 기존에 다소 복잡했던 구조를 간소화하고, 유사 성격의 메뉴는 모둠별로 정리했다.

또한, 사용자들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모바일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 '반응형 웹' 형태로 개선된 것도 특징이다.

또한, 그동안 분산돼 있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과 행사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유유자적(悠悠自適, 문화재 활용과 행사 정보)'을 통해 제공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문화재 검색과 간행물 자료를 누리집 첫 화면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티베트역경원 특강 실시

27일부터 티베트어 강좌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겨울방학을 맞아 '현대 티벳어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티베트어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티베트어 특강은 양승규 동국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이 초급 티베트어와 중급 티베트어로 나눠 강의한다.

특강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기초반은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중급반은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54)770-2893

신성민 기자

제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29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979년부터 국내최초로 각종 마이크를 연구, 개발해
전 세계에 수출을 주도해온 음향계의 원로
(해월)김문화가 몇 달간의 법당 실험 후
드디어
모든 스님들께 자신있게
권하는 마이크 -

소장 : 김문화 無線設備技社
제1급아마추어무선사

고성능 마이크 출시!
염불, 법문전용 초 원거리용

탁좌에 꽂은 모양



•60cm이상 떨어져도 맑고 힘있고 장엄하게 울리는 소리에 한번 놀라고!
•목에 걸어도, 탁좌 스탠드에 꽂고써도, 뛰어난 성능에 한번 더 놀라는 마이크!

◆가격 : 175,000원(홀더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 자체 개발한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합니다!

본 초 고성능 마이크는 원거리용 고감도, 고성능마이크로, 법당의 탁좌, 또는 좌대의 염불, 법문, 전용으로 행사시 사회자용이나 "찬불가"용 등 어느곳에 사용 하여도 뛰어난 원음의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에 건 모양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취급품목◆
▪ 최고급 파워드믹싱앰프
▪ 일반 스테레오앰프
▪ 법당 전용 대출력 스피커
▪ 각종 무선 마이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느 봄날의 일기

별것 아닌 것들의 소소한 행복이 나를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한다. 노랑나비가 여린 날갯짓으로 양지바른 담장에 기대어 졸고 있는 나에게 다가온다. 천지창조의 비밀이 노랑나비의 출현으로 풀리고 있다.

따스한 햇살을 빨아들이며 매화나무 가지에서는 꽃망울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톱과 망치로 작업하다 엄지손톱 깊이 나무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쓰리고 아프다. 봄볕은 돌아가신 어머님만 그리운 게 아닌가보다. 미안했던 일, 고맙고 감사했던 얼굴도 아지랑이 속에서 피어오른다.

산이 쩡쩡 울릴 만큼 바위벽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여전(旅錢) 한 닢 마련 없이도 어디론지 떠나고 싶다. 남은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니 세상이 배안에 담겨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누군가 법당의 부처님 앞에 사과 한 알을 놓고 가 그 사과로 후식까지 즐기고 있으니 이만하면 산골 늙은이의 화려한 점심을 마친 셈이다.

오전에는 수원에서 왔다는 어떤 할머니가 정다운 스님을 찾아 사자암엘 다녀갔다. 사주 관상의 권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칭 도사 할머니는 글쎄 정다운이 사자암에 없는 것은 예견하지 못함인지 헛걸음을 한 셈이다.

익산에 산다는 어느 할머니는 전화기 속에서 '징 징 징' 울고 있다. 딸이 시집간 후 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아 사위와 이혼하고 딸아이 하나 기르다가 작년 이맘때 세상을 떠났다는 것, 본인도 국가에서 매달 지급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딸의 49재도 치르지 못했다는 것, '가난이 원수'라며 죽은 딸이 꿈에 자주 나타나니 천도재를 지내고 싶다는 것, 그런데 돈이 없으니 어쩌면 좋겠냐며 울먹이고 있는 것.

나도 울먹이며 말하였다. 그럼 그 죽은 딸의 어린 딸은 누구랑 살고 있느냐고. 초등학교 2학년인 손녀딸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낸다는 것.

하여, 동정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천도재 날짜를 알려 주었고 손녀딸에게도 사자암 운영회에서 용돈을 마련해 주겠다며 배3개, 사과3개만 준비하고 다른 일체 준비물이나 비용은 사자암의 운영회에서 기꺼이 책임질 터이니 빈손으로 오시라며 마음을 덮혀 드렸던 것, 사자암에는 49재나 천도재가 가뭄에 콩 나듯 1년에 서너 차례 있게 된다. 내용은 다르긴 하나 대개는 사연있는 자들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연히 경제부담 없고 목탁 울리는 시간이 10분 안팎이다.

목탁 염불소리로 귀신 오지 않는다며 죽은 자를 위함보다는 산자를 위한 종교의례임을 미리 밝혀둔다. 사자암에서 14년을 머물고 있지만 신도들에게 권선문 한차례 내민 적 없고 대학입시 합격기도 한번 치룬바 없다.

목마를 때는 자신이 물 마셔야 목마름이 가시고 오줌 마려울 때도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와야 개운한 이치를 여러 차례 설명해 사자암 신도들은 자기 불공은 자기가 법당에서 절하며 염불하며 축원까지 하고 있다.

주지도 바쁘다. 사자암에는 공양주가 없어 세끼니 식사담당은 주지 몫이다. 풀 뽑고 마당 쓸며 도량의 허드렛일도 머슴처럼 부지런히 일 잘하는 주지 담당이다. 거기다가 주말이면 찾아드는 다양한 방문객과 인생 상담, 신앙상담 등 대화자가 되어야하고 이웃처럼 친구처럼 편한 대화를 해야 한다. 산이 텅텅 비어있는 날엔 사자암 주지는 빨래나 바느질을 즐긴다. 늙디 늙은 할배이지만 시력과 청력이 정상이다. 사자암에는 주지 도반이 많은데 진돗개 2마리 고양이 13마리가 좋은 스승이자 착한 벗이다.

할 일 없는 늙은이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다. 조건 없이 행복하다. 개운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글쎄,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꾸미거나 드러냄 없이 감추거나 속이는 일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꽃잎 지는 대로 순리에 순응하며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자암 주지 향봉이는 복이 골고루 넘칠 만큼 행복한 스님이다.

생활이 가난하나 불편하지 않고 바람이 없으므로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다. 울고 싶을 때는 잔잔히 울고 기분 좋은 날은 유행가도 부른다. 넘침과 부족함 없이 날마다 좋은날의 평화, 행복, 자유 누리는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 〈끝〉

있는 듯 없는 듯 살지만 마음 편하다
곰곰이 생각하면 난 행복한 스님이다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불교의 모든 설법을 방편설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적당한 말을 해 줘 듣는 이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를 높여 주는 방법을 쓰는 것을 말한다. 교(敎)에서는 이를 수기설법(隨機說法)이라 하여 권교법문(權敎法門)이라 말하기도 한다.

격외담(格外談)을 주로 하는 선(禪)에서도 고차원적인 방편설이 있다. 가령 〈임제록〉에 나오는 말 가운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는 살불살조(殺佛殺祖)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교조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역부도(大逆不道)한 말이다. 그러나 불교는, 특히 선은 교조주의가 아니다. 어떤 도그마도 없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부처님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석가모니도 '나를 따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방망이로 학인을 곧잘 때렸던 방(棒)으로 유명한 덕산선감(德山宣鑑:782~865)의 '부처는 없다'는 뜻으로 나온 '불야(佛也)' 공안이 있다.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한다(呵佛罵祖)'는 덕산 특유의 선풍에서 나온 말이다.

〈선문염송설화〉 676칙에 덕산이 대중에게 설법하는 장면이 있다. 덕산이 말한다.

"나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달마는 비린내나는 오랑캐요, 10지 보살은 똥 푸는 사람이요, 등각, 묘각 두 보살은 파계한 범부다. 보리와 열반은 나귀 매는 말뚝이요, 12분교(分敎)는 귀신이 고름 닦는 휴지다. 사과(四果)와 삼현(三賢)과 초심(初心)과 10지(十地)는 옛 무덤을 지키는 귀신이다. 그래 가지고 자신인들 구제하겠는가? 부처란 늙은 오랑캐의 똥막대기니라."

무슨 법문이 이런가? 말 그대로라면 분명히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한 마설(魔說) 같은 말이다. 이에 대해 운문문언(雲門文偃:?~949)이 언급한 말이 이어나온다.

"부처를 찬양하고 조사를 찬양하는 데는 반드시 덕산 노인이라야 되느니라." 부처와 조사를 찬양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다. 덕산 정도 되어야 부처와 조사를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낭야혜각(瑯琊慧覺)은 평하기를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이 말한다면 지옥에 쏜살 같이 들어갈 것이다. 운문이 이렇게 말했더라도 또한 쏜살 같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설화〉에는 "이 화두는 높은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바른 법령(法令)을 전부 들어 보이는 것이니 이것이 부처를 찬양하고 조사를 찬양하는 것이다. 처음에 10지를 통틀어 들었고 나중에는 초심자를 이른 말이다. 낭야의 평에서 '지옥으로 쏜살같이 들어간다' 한 것은 부처님과 조사를 비방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업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뜻이다.

장산찬원(蔣山贊元)이 법좌에 올라 이 화두를 가지고 말했다.

"그대들은 보라! 덕산이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매도하며 최상승법(最上乘法)을 해치다가 곧바로 발설지옥(拔舌地獄)으로 들어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느니라. 설령 삼세의 부처님이라도 그의 죄를 면하게 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저 덕산을 구해 줄 사람은 없는가? 있다면 크게 신통을 즐기는 대로 놓아 둘 것이며, 만약 없다면 내가 눈과 귀와 코가 없는 한 사람을 보내어 그의 목숨을 구해 주도록 하겠다."

부처가 되려면 부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매우 역설적인 말이 있다. 어떤 관념에 빠져 그 생각을 앞세워 무엇을 하려는 것은 세속적인 일일 뿐이요 출세간법은 아니다. 출격장부(出格丈夫)의 기상은 부처나 조사에 매이지 않는다고 한다. "장부에게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뜻이 있으니 여래가 간 곳을 향해 가지 말지어다.(丈夫自有衝天志, 莫向如來行處行)"라고 한 말도 있다. 무착문희(無着文喜:8821~900)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하는 원(願)을 가지고 오대산에 가 공양주를 하다가 죽 끓이는 솥 위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 한다. 감격을 하여 희열이 넘칠 일인데 무착이 주걱으로 문수를 때리면서 "문수는 문수이고 무착은 무착일 뿐이다."라고 말했다는 〈오등회원(五燈會元)〉에 전해지는 설화가 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무슨 상관 있느냐는 말로 부처나 조사라 하더라도 나와 동격이라 나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끝〉

善業 공덕으로 온 중생 부처 지혜 얻길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㉔ 가장 수승한 발원

제바라 보살이 지은 〈대장부론〉의 마지막 회는 28품 '동등발원품(等同發願品)'과 29품 '승발원품(勝發願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면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대장부론〉 가운데 감동을 줄 만한 명문이 있으나 독자들께서 직접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먼저, 〈대장부론〉의 두 품을 간략히 소개하기 앞서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타난 대장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어진이여, 대장부란 이와 같이 부지런히 종종 방편을 구하여 응당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를 서원하며, 발보리심을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청정행을 일찍이 그치지 않으며, 대승의 도를 구하되 일찍이 게으르지 않으며, 일체 큰 법구름과 비를 지녀 항상 부지런히 도를 돕는 법을 쌓고, 원만하게 일체의 선한 멍에를 버리지 않으며, 늘 일체 청정한 법문을 즐거워하며, 보살행을 닦으며, 용맹하게 전진하며, 생각생각 부지런히 구하며, 생사를 벗어나 행하며, 큰 서원을 만족하게 이루며, 선지식 뵙는 것을 싫어하여 만족하지 않으며, 선지식 섬김에 몸이 피곤하거나 게으르지 않으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어 항상 생각하고 따라 행하며 일찍이 거역하지 않느니라.(諸仁者! 此大丈夫如是勤求種種方便, 誓當救護一切衆生, 發菩提心相續不斷, 於淸淨行未曾休息, 求大乘道曾無懈倦, 受持一切大法雲雨, 恒勤積集助道之法, 圓滿一切不捨善 } 常樂一切淸淨法門, 修菩薩行, 勇猛精進, 念念勤求, 無有退轉, 出生諸行, 成滿大願, 見善知識情無厭足, 事善知識身不疲懈, 聞善知識所有敎誨, 常思順行, 未曾違逆。)'

〈대장부론〉 마지막 28품과 29품에 나타난 발원도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타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대장부란 결국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력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장부는 자신의 출가도, 수행도, 심지어 삶의 목적도 모두 중생구제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다. 희생이 즐거워서 남이 즐거우면 즐겁고, 남이 배부르면 따라 내 배도 부르고, 남의 괴로움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치 9대 독자를 대하는 어미 아비의 마음처럼 간절하다. 결국 제바라 보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보현행이 나닐까 생각한다. 화엄경에서 그토록 말하고자 했던 중심 내용도 결국 보현행이었으니 말이다. 모든 보살이 보현행을 구족할 때 비로소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화엄의 중심사상이니 말이다.

28품인 '동등발원품(等同發願品)'은 '등정각인 부처님과 같은 발원'이며, 29품인 '승발원품(勝發願品)'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발원'을 담은 내용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승발원품(勝發願品)'에 나타난 제바라 보살의 발원을 소개하면서 〈대장부론〉의 마지막 회를 장식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모두의 발원이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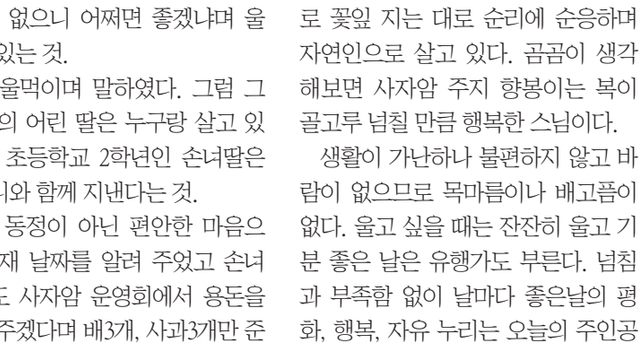
'만약 내가 한 중생에게라도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 이익과 즐거움을 줄 때에는 대비심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자비로써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되 일체 중생의 괴로움이 모두 나에게 닥쳐오게 하소서. 나의 지금 이 두려움 없는 보시의 복으로써 일체 중생이 모두가 대비를 얻게 하소서.(若我於一衆生起於悲心與利樂時。願使大悲堅固。以悲滅衆生苦。使一切衆生苦皆來逼我。我今以此無畏施福。使一切衆生皆得大悲。)'

'내가 생사 속에서 왕래한 인연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내가 착한 마음을 일으킨 공덕의 인연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以我於生死中往返因緣功德。使一切衆生皆得作佛。以我發善心功德因緣。使一切衆生皆得佛智。)' 〈끝〉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사찰서 쉬고 싶어 성주사에 왔어요!”

창원 성주사, 템플스테이 문화도량 성장 ‘눈길’

창원 성주사가 템플스테이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문화도량으로 성장하고 있어 화제다.

12월 16일 이른 아침 방문한 창원 성주사(주지 원종) 템플스테이 현장에서는 스님을 둘러싸고 둥글게 앉은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성주사에서 진행하는 꿈나무 템플스테이에 방문한 명곡고등학교 학생들이다. 참가인원은 10여 명으로 적지만 이번 템플스테이까지 포함하면 벌써 4번째 방문이란다. 학생들은 금요일 저녁 학교를 마치고 찾아와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스님과의 차담에서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명곡고교에서 찾아온 학생들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달빛 탑돌이, 사경대회, 미션, 성주사 문화재를 찾아라 등에 참여하고 불교문화를 친구들과 접해 즐거웠다고 했다. 차담을 마친 학생들은 자유롭게 도량을 거닐며 차가운 바람도 시원하다며 즐거워했다. 성주사는 학생들을 위한 열린 도량을 지향하며 템플스테이를 상시로 열고 언제나 찾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주사는 뛰어난 템플스테이 운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한 해 방문한 외국인과 학생이 총 20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성주사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재방문하고 싶은 템플스테이로 성주사를 손꼽는다. 성주사는 학생들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유치원생, 경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다.

주지 원종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성장 동력으로 ‘정성과 친절’을 꼽았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기 위해 모인 모든 팀원과 사찰 소임자 그리고 공양주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곧 포교의 시작이 된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험과 문화에서 불교에 대한 이

연간 남녀노소 2000명 동참
‘정성’과 ‘친절’로 다가가고
외국인 · 아빠 프로그램 개발
“불자 위한 수행스테이도 준비”

미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에 따라 불교는 결정됩니다. 짜증내는 사람을 사찰에서 만나면 불교는 짜증내는 종교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모든 봉사자와 일반 재가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이라는 튼튼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주사는 이와 함께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즐길 거리를 마련,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도록 유도해 큰 성공을 이뤘다.


성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명곡고교 학생들과 주지 원종 스님. 학생들은 이번이 4번째 템플스테이다. 창원 성주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템플스테이로 각광받고 있다.

먼저 지난 한 해 외국인 K-POP 경연 참가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14개국에서 찾아온 69명의 외국인 참가자와 방송 관계자까지 100여 명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K-POP 한국문화를 좋아해 찾아온 외국인들은 촛불명상, 소원지 작성, 연등 달기 등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최고라고 입을 모았다. 또 사찰을 찾기 어색해하는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매년 아버지 참여 수업을 열어 ‘아빠와 함께 하는 1박2일’을 진행한다. 부제는 ‘엄마 없이 살아보기’로 어린 자녀와 추억을 쌓도록 돕고 사찰 방문을 편하게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자 거사 포교의 일환이기도 하다.

성주사 템플스테이의 성공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진취적인 자세다. 템플스테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성주사는 사단법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창원 서부경찰서 등 여러 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원종 스님은 “현재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사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성주사 템플스테이는 포교를 위한 중심처가 될 뿐 아니라 신도들에게 수행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참된 포교를 위해선 수행자가 수행자다워야 하고 불자가 불자다워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불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도 마련할 것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연제구불교聯, 팥죽으로 새해 기원

시민 2000명에게 나눠



새해 희망찬 광명을 기원하며 옛 조상들은 동지에 팥죽을 나눴다.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 스님들도 이 같은 세시풍속에 따라 시민과 팥죽을 나누며 밝은 새해를 기원했다.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회장 무관)는 12월 17일 ‘정유년 따뜻한 동지팥죽나눔행사’를 부산시청등대광장에서 개최했다.〈사진〉 연제구불교연합회는 매년 동지를 맞아 팥죽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2000인분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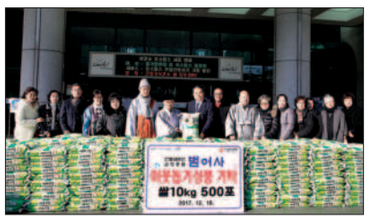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부대중은 광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했다. 개회식에는 회장 무관 스님, 부회장 화엄사 법승 스님을 비롯해 보은사 월광 스님, 은진사 천웅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각 사찰 신행 봉사단 5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무관 스님은 “동지는 우리 민족 전통문화이다. 동지를 기점으로 점점 해가 길어진다”며 “팥죽 나눔은 송구영신을 의미한다. 연제구 스님들이 오늘 진행하는 팥죽 나눔으로 행복을 함께 기원하고 새해를 맞이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부회장 법승 스님은 “연제구불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무관 스님을 비롯해 모두들 고생 많으셨다”며 “다음 해는 앞으로 더욱 단합되길 바라며 추운 겨울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추길 바란다”고 화합을 기원했다. 하성미 기자

금정총림, 소외 이웃 위한 자비의 쌀 전달

12월 19일 금정구청에 5000kg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금정총림 범어사가 자비의 쌀을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2월 19일 금정구청에 방문, 자비의 쌀 5000kg을 전달했다.〈사진〉 자비의 쌀은 독거어르신을 비롯해 지역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주지 경선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 원주 석경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내 신행단체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선 스님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찾아왔다”며 “앞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하기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정희 구청장은 “범어사는 금정구뿐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협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순례로 종교화합 나서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위해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들이 제주에 위치한 종교 시설 및 사찰을 방문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회장 목종)는 12월 15일~17일 제주 종교시설 순례를 실시했다. 순례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 회장 목종 스님, 고문 정각 스님, 박차귀 · 박호권 천도교 선도사, 이정식 · 김대준 원불교 교무, 박동신 성공회 주교, 이성호 신부, 김두호 기장향교 사무국장 등 12명이 참여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유교를 설명하는 ‘제주향교’를 시작으로 원불교 국제훈련원과 요양원, 제주 국조전(선교)을 방문했다. 천주교 대표 순례지는 ‘성 이시돌 센터’를 찾아 재단의 창시자 맥 그린치 신부의 일대기를 경청했다. 아울러 산방산 보문사와 서귀포에 위치한 약천사를 찾아 불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활동을 고찰했다. 하성미 기자

사랑의 연탄배달 “자비로 추위 녹인다”

부산불교교육대학 비롯해 사부대중 훈기 나누기 총력

연말연시 따뜻함을 나누는 불교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자비나눔실천 승가단체인 화엄승가회,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이 연탄 1만장과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자비성금을 전달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이승표)은 12월 16일 부산진구 개금3동 주민에게 연탄 1만장을 전달했다.〈사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겨울 주말, 스님과 불자들은 한 줄로 길게 서서 연탄을 배달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하며 조심스럽게 집집마다 연탄을 전달해 훈기를 가득 채웠다. 추운 겨울이지만 이내 구슬땀이 흘렀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자비의 연탄나눔은 지난해 11월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의 제안으로 올해 1월 처음 50여 명이 동참해 시작됐다. 이번 연탄 나눔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직접 참여해 많은 동참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범혜 스님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따뜻한 마음을 내어 많은 대중이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자비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자인 스님께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은 “오늘 연탄 나눔은 스님과 동문 모두가 한마음을 내줘서 가능할 수 있었다”며 “부처님께서 제일 큰 복을 짓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배고픈 자에게 밥 주는 것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 뜻을 이루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행사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승표 단장은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다른 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자비 연탄 나눔 행사에 참가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연탄 나눔에 앞서 포항 지진 복구를 위해 모은 성금 100만원을 BBS부산불교방송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선재들의 공덕으로 사회 맑히자”

선재공덕회, 봉사 · 후원인의 밤



대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선지) 신도회가 선재공덕회 자원봉사자 · 후원인의 밤을 12월 14일 대구 파라다이스 컨벤션웨딩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에는 연합회장 선지 스님과 선재공덕회 운영위원장 정효 스님, 마하야나불교문화원-우리불교문화원장 해월 스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연합회는 강정규 신도회장을 비롯해 5명의 봉사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재공덕회 운영위원장 정효 스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해주시는 분이나 부설기관 임직원에게 감사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선재공덕회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대구불교사원연합회장 선지 스님은 “선행으로 나를 낮추고 이웃을 공경하며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선재공덕회가 아름다운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시마

격조 높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안내문

1. 무속의 영점, 신점이 아닙니다.
2. 주역, 타로, 사주, 점성술 등의 역술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순수하게 영적인 에너지만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는 기묘한 점술입니다.
4. 고도의 집중력과 강력한 에너지장을 떠올려서 보고 듣기에 적중률이 뛰어납니다.
5. 본인 점술의 최대 장점은 질문자가 물었을 때 두리뭉실하지 않고 깊이 있고 다양하며 상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 담 료 : 10분 이내 7만원, 20분 이내 14만원 .....
10분 마다 7만원씩 분할결제 가능 (선불제)

상담가능시간 : 오후 1시 이후

연 락 처 : 010-9546-9797

시마(XIMA) 배상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빙의(귀신들림) 치유 상담 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빼내는(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 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 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 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목매어,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영산의식 예술적 가치 조명 박차”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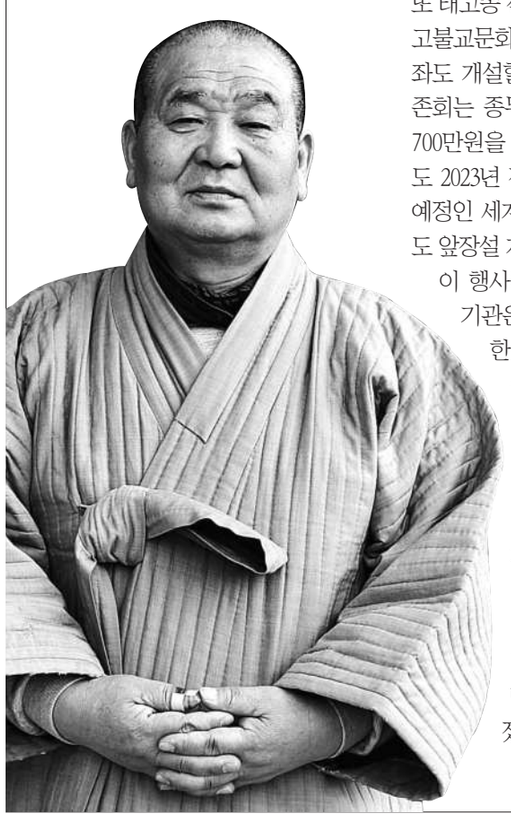
전북영산보존회장 법륜 스님

“화려하면서도 섬세하고, 장엄하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깃든 전북영산작법 보존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98년 전북지역 불교무형문화재 최초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에 지정된 ‘전북영산작법보존회’ 회장 법륜 스님(전주 동고사 주지)은 전북영산작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현재 전북영산작법보존회원인 37명의 스님들은 전라북도로 무형문화재 전수자로 등록돼 있고, 이 중 6명의 스님이 이수자로 지정됐다. 매년 심사를 거칠수록 이수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영산작법은 불교의식을 떠나 예술적 가치로서 전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전 회원들이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는 전국 다양한 곳에서 초청을 받아 활발한 공연을 펼치며 불교무형문화재 보급에 나서고 있다. 매년 국립무형문화유산원에서 정기적인 영산작법 공연을 펼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한편, 전국각지에서 작법과 어산에 관심 있는 스님과 한국무용을 공부하는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받기도 한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6.25전쟁으로 인해 많은 전사자가 속출한 의왕 백운산과 모악산 일대의 전쟁희생자 위령재에 참여했고,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에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조속한 구조를 기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하기도 했다.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보존회는 보수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매년 3회에 걸쳐 영산작법보존회 전수관에서 열리는 교육과 연수에는 전 전수자 스님들이 참석해 1주일여에 걸쳐 영산재 전 과정을 재연한다. 또 영산작법 보급을 위해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작법무와 범패소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12명의 일반인들이 스님들로부터 영산작법을 익혔다.

불교전통문화 계승 위해 일반인에게도 문호 개방

“영산작법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전통의식입니다. 기술 습득보다 영산재에 담긴 뜻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수교육과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회장 법륜 스님은 전북영산작법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전통의식에 해박하고 조예가 깊은 스님들을 초빙해 전문적인 강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뜻을 모아 태고불교문화대학을 통해 영산작법 강좌도 개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존회는 종무원 발전기금과 장학기금 7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3년 전북 새만금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잼버리대회 성공 기원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 행사를 위해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물론 전북종무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북지역 불교의 전통의식인 영산작법이 오래도록 유지되면서 계승 ·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영산작법의 계승과 발전을 다짐하는 법륜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燈 밝히고 내 마음도 밝히고”

광주불교연합회 강습회 봉축행사 준비 일환으로



광주불교연합회가 개최한 전통등 강습회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등을 뽐내고 있다.

빛고을 광주를 환히 밝힐 전통등을 만드는 교육이 마련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2월 16~17일 양일간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빛고을관등회 전통등(燈) 강습회’를 열고 내년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사용될 행렬등 만들기 강좌를 실시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강습회에는 스님들과 40여 명의 지역 사찰 및 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중에서 전통등을 만들고 행진하는 것은 1500여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행사다. 특히 전통등은 한지에 아름다운 등불을 켜는 것으로, 등불의 아름다움이 혼탁한 세상을 이겨내고자 하는 부처님의 은은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며 “각 사찰에서 아름다운 등을 만들어 봉축행사에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습회는 16일 오리엔테이션과 골조 만들기, 배접, 아교 물들이기에 이어 17일 채색 및 꾸미기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전영일 전통등공방 작가 등 4명이 지도하며 복주머니등, 목어등, 보리수등 만들기를 돕고, 전통등 만들기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소개했다.

행사를 지원한 강문정 연등회보존위원회 팀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지역의 봉축행사가 활발하다. 앞으로도 지역사찰에서 전통등을 많이 보급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습회를 시작으로 내년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에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본 행사인 법요식 및 연등행진, 대동한마당(2018년 5월 12일)을 비롯해 각 사찰별 율동강습회, 등 만들기 강습회 등 다양한 사전 교육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지역 봉축행사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겨울 덥히는 ‘자비의 연탄’

군산사암연합회 대중 저소득 가구 연탄 나눠



군산사암연합회 스님과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불자들이 금반마을서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연탄을 나르는 모습.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가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해결하는 홀몸어르신과 저소득계층을 위해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를 펼쳤다.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 50여 명은 12월 16일 군산시 대야면 금반마을 일대에서 저소득계층 17가구에 각 300장씩 5,0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장 도연 스님을 비롯한 군산사암연합회 스님과 불자들은 군산시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자비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추위를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연탄을 전달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한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불자들은 “지역불자들이 스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에 적극 동참했다. 사부대중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편 군산사암연합회는 군산지역 종교인들과 함께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군산 4대 종교 평화합창제를 주관하는 등 종교간 소통과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사상 배운 9개월 “공동체 성품 갖췄어요”

생명평화실천단 6기 졸업식

전북불교네트워크 부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이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사상을 일깨워주고, 스스로 삶의 주인공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펼친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2월 16일 전주 전북생명평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6기 졸업식에는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오종근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장, 유정희 자연음식문화원장, 실천단원, 보조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지역 고등학생 40명으로 구성된 6기 청소년생명평화 실천단은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9개월 동안 템플스테이, 분반체험, 생명평화 모내기, 여름캠프, 노인 나눔잔치, 생명평화 벼 베기, 생명수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모범적으로 활동한 김성원(동암고2) 학생이게 조계종총무원장상, 김다혜(전주대 사대부고2) 학생이 전라북도교육감상, 조현우(한일고2) 학생이 생명평화실천상을 수상했다.

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인생을 개척해나가야 할 시기에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인성을 함양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꾸준한 생명나눔운동 “부처님 참 제자 본분”

광주생명나눔, 우수봉사자 시상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20일 광주 베네치아에서 ‘2017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연간 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 봉사자에 대해 시상했다.

이 자리서 본부장 현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후원자와 봉사자야말로 부처님의 참 제자”라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김명선 · 박수정 씨가 각각 광주시장상과 광주교육감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박선희 · 이숙희 · 정진혁 씨에게는 공로패와 감사패, 자원봉사자상이 수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소림사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5길 62. 4동 411호 (고척동 서울가든 아파트)
- 법 명 : 묘륜(나영옥)
- 승려번호 : 제38-2621호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사)한국불교염불종 총무원장 법하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병이 없는 것이 제일 가는 이익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가는 부자이며, 가족이 제일 가는 벗이고, 고요함이 제일 가는 즐거움이다.

– 법집요송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 법 전 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산소송사재판,이혼수,낙태유산,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천기누설)
010-4014-8822

불자가정 국제결혼 상담 (초.재혼)
결혼의 조건으로 개종을 서약하는 동남아의 형태, 이교도들 만행을 볼수없어 스님이 직접 중매함. 동남아에 거주하는 스님들 5개국연계 (불교인만가능)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불교인의 결혼을 성사시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사찰과 연계하여 성사시킴
인터넷전화
070-4001-9865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사찰 포교원 부전
서울 경기지역 전문 안내
경기지역 요양원을 안내
철거 인테리어 상담
010-5381-1419
참신한 공양주 찾습니다
010-9421-0730

풍경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41-631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010-3525-9919

기도 스님,
처사님, 행자님
구함
(부산)
010-3840-4455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기도처, 공부하실 곳이 마땅하지 않으신 비구니스님 누구나.
숙식 무료제공(5명 선착순)
* 본 사찰에서 기도, 부전스님으로 있을 수도 있음
(상담 후 결정)
010-5212-4533

배우자 구함
남 64세, 회사원, 여행 취미
성격 부드럽고 진실한 아들 없는 홀로 되신 여성 인연 바랍니다.
(북한 여성 환영)
010-4074-3073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1시간이면 비 법 전 수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최면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면. 우리들의 내면에 빙의 (신들림)나 우울증, 어깨통증 환자를 비롯해 많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최면 치료는 재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심리치료로 재발이 없습니다.
최면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의 : 3개월 (일주일 3시간 / 목요일 오후 2~5시)
한국임상최면학회 회장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 교수
052)227-7044. 010-4844-7002
홈페이지 www.hypnosis.or.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 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 및 사암만이 기부금 행위 등 종교활동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 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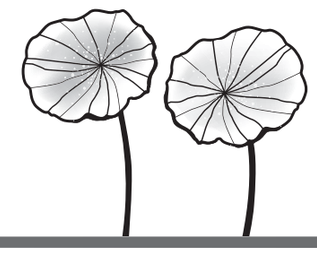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탐욕 · 성냄 · 어리석음 · 두려움 있으면 바른 법을 이어받지 못하며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보름 지난 저 달이 이지러짐 같네.

– 선생자경 –



음성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요사채. 방사등. 토지 26.000㎡
- 건물 총 4동 140평. 주변 산사찰
- 양도 : 10억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사찰부지 ◎ 위치 : 경기도
◎ 대지 : 70평, 부지 400평 ◎ 대지 : 2200평
◎ 합 470평 ◎ 인법당 : 40평, 차량진입
◎ 산 및 바다조망 ◎ 계곡 및 산속
◎ 양도가 : 1억 1천 ◎ 양도가 : 6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음성 사찰(급) 안내

- 목조법당.요사채 등
- 토지 3.600㎡. 위치 좋음
- 주변산사찰. 운영잘됨
- *수행터로 기도 도량
- 양도가액 : 8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103-35호 서울에서 1시간거리 감곡IC 10분거리 2018년 전철개통 예정
- 대지 184평, 답 290평 전체 474평
- 삼존불외 약사 여래불 약사기도원 모두 목불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불, 지장불 약사여래불 삼성각 약사여래기도 도량
- 지하대공 116m, 황토방 건물 약 60평
- 전체 몸만 오시면 됨, 완벽함, 모든것 일체, 납골부지 포함
- 가액 : 2억 6천

010-6674-1356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4천 8백 만원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입주, 몸 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포교원(급)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동
- 최고 요지
- 원불 : 아미타, 관세음, 지장
- 소불 200
- 소임관계 급, 즉시법회
- 가액 : 보 2천 38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695-1060

암자(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마곡사 근처
- 면적 100평
- 특징 : 큰스님 공부하셨던 아담하고 예쁜 암자
- 조용한 토굴
- 가액 : 1억원

010-3566-03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화장실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불교 고장 김해 부득이 임대하고저 합니다
- 큰 대로 옆, 건물 65평
- 방사 3칸, 공양간 1칸 화장실 남, 녀 각1개, 주차완비
- 아미타 삼존불, 천수관음 포대화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절충가능

010-7702-6296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 상가 : 4층, 5층, 평수 70평
- 층수 : 4, 5층 법당 및 요사채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 80만원
- 현재법회 중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비품 등은 보시고 협의하여 결정

010-3305-531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주거 또는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평수 230평, 건물 30평
- 계곡물 사시사철 흐릅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943-141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5019-5385

암자기도도량 안내

- 위치 : 조용하고 아늑한 지리산
- 계곡 기도도량 총 387평
- 법당 1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양도가액: 토지316평 7천만원 전세 : 3천만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길 99-30 (약사암)

연락처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5평 요사채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4억 8천

010-2591-4736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7-25
- 시장을 끼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 주지스님이 일본가시는 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자 합니다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 월 100만원

010-3709-11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평수 265㎡(80평) 2층 법당 20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체 15평
- 아랫체 창고 방 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융자 4천 안고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8794-1257

010-6222-5835

토굴 분양 안내

- 총 7개동(내부시설 완벽) 1개동 대지면적 47평, 건물면적 10평
- 분양가7500만원(부동산4000, 동산3000)
- 남해바다.산.사찰. 풍광이 어우러진최고의 명당
- 황토구들장구조 • 위치에 분양가 조정됨
- 경남 남해군남면홍현리 581-2(무지개로 81번길23-34)

연락처 : 010-5352-9245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정읍(구미공단)
- 낙동강 전망(최고의 기도처)
- 구미공단인근
- 부지: 538평,건물: 2층 120평 2층 : 법당, 1층: 요사채
- 가액 : 12억 5000만원

010-3532-712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아양교 지하철 100미터거리)
- 3층 건물 중 2층
- 법당 50평, 삼존불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시설비 3천만원 답사후절충

010-9823-5890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도로에서 등산로 20분(950m)
- 법당1, 요사채3, 황토집4동
- 종교용지 전답 800평 (깊은산골 청정도량)
- 가액 : 1억 8천(조정가능)

016-61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법당 20평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합니다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 2억

연락처 010-2702-0303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작품 감상+명상… 뉴욕 박물관 명상 '열풍'

메트로폴리탄 · MoMA 등 요가 · 명상 프로그램 진행



사진설명: 미국 뉴욕에서 요가나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박물관이 늘고 있어 화제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뉴욕 등 도심에 위치한 박물관들이 주민들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진출처=뉴욕타임즈

미국 뉴욕에서 요가나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박물관이 늘고 있어 화제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뉴욕 등 도심에 위치한 박물관들이 주민들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히말라야 인근 지역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루빈 박물관은 매주 소장 예술작품을 선정해 이를 주제로 40분간 마음챙김 명상과 질의응답을 갖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15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수업에 참가해 강사 트레이시 코크란의 지시에 따라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코크란은 스크린에 19세기 만들어진 트럼펫을 보여주며 무상(無常)함에 대해 설명한 뒤 예술품을 감상하는 투어를 진행했다.

루빈 박물관은 이 외에도 음악과 진동을 활용해 치유하는 '소리 목욕(Sound Bath)'과 잘 쓰지 않는 청각 근육을 스트레칭 해 귀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귀 요가(Ear Yoga)'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던 에셀만은 "우리는 참가자들이 그들과 예술품사이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온몸을 사용해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깨우는 일은 자신을 위한 엄청난 선물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실존한 부처님의 상(像) 앞에서 명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1년간 수업에 참여한 그래픽 디자이너 장마크 차지는 "나는 박물관을 사랑한다. 박물관에 올 때는 스트레스상태로 오지만 떠날 때는 훨씬 상태가 좋아져서 나간다"며 "늘 불안감에 시달리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지 못했는데 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뇌를 위한 운동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캐슬린 콘키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주중 하루 이곳에 와서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돌아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많은 박물관들이 소장품의 미학 · 철학적 요소를 반영하는 수업에 요가나 명상 수업에 웰니스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올해 초 박물관의 넓은 공간을 이용해 전문 무용수들이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모마(MoMA)현대 미술관은 '조용한 아침(Quiet Morning)'이란 프로그램을 1년간 진행해오고 있다. 오전 7시 30분부터 미술관을 산책하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웰니스 전문가가 지도하는 명상 세션에 참가하는 이 프로그램은 평균 500명이 등록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비영리재단인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에서도 매주 명상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은 불교를 주제로 한 두 개 전시공간에서 걷기명상, 좌선, 마음챙김 명상 등을 진행하는데 참가 인원이 60~70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할렘의 내셔널 재즈 뮤지엄은 재즈와 접목시킨 빈야사 요가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다. 90분간 진행되는 요가 수업에서는 라이브 힙합 재즈 연주가 배경음으로 깔리며, 서로 간단한 인사를 통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1시간 동안 요가를 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인 라이언 멀로니는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 늦은 오후에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라며 "박물관이 비어있는 시간에 전통 재즈를 활용해 음악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객원기자

"불교는 가장 훌륭한 심리학 · 신경과학"

애틀랜틱, 12월 17일 〈자아 너머〉인용 주장

과학자 · 스님 대담 진행해
"2,500년 동안 마음에 대해 조사한 건 오로지 불교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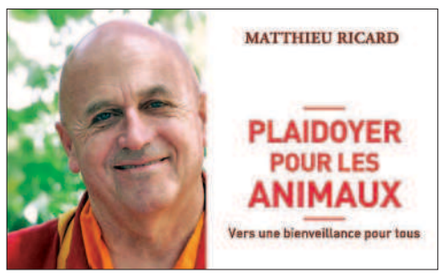
불교와 신경과학은 언뜻 봐서는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다. 그런데 미국서 가장 유서 깊고 권위 있는 평론지로 꼽히는 '애틀랜틱'이 '현대 신경과학이 불교로부터 배워야한다'고 보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애틀랜틱'은 〈자아 너머〉(Beyond the Self · 국내판 미출시)를 인용했다. 특히 분자 생물학자였지만 네팔에서 불교 스님이 된 매튜 리카드(Matthieu Ricard)의 이야기를 주로 실었다. 명상과 뇌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신경과학자 울프 싱어(Wolf Singer)의 이야기도 함께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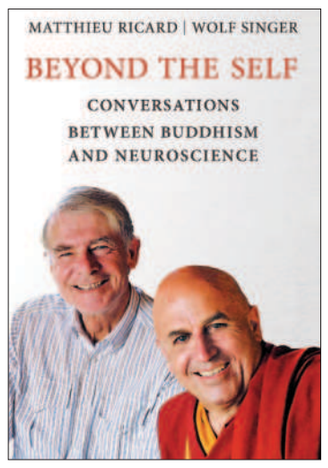
리카드는 "불교 문헌에서 발견되는 많은 논리들이 서구의 의학, 우주론, 식물학, 논리 등을 확장시켰다"며 "불교는 2,500년 동안 마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왔다. 수 세기에 걸쳐 수 많은 경험적 발견을 축적해왔다"고 논지를 전했다. 현대 서구 심리학의 역사는 1세기 전 윌리엄 제임스와 함께 시작됐다. 리카드는 "프로이트는 복잡한 이론을 정교하게 다룬다. 서구의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집착한다. 하지만 어떤 것도 2천 년간 직접 조사한 것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리카드는 특히 명상이야 말로 뇌 과학 그 자체며, 이것을 불교는 수 천 년 간 지속 발전해왔다고 강조하며 "명상은 정신을 단련시켜 사람을 더 주의 깊고 이타적이고 평온하게 만들어준다"고 덧붙였다.

현대 심리학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주의력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자질을 계발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정신적 불균형을 치료하는데 애쓰고, 정신 분석학의 경우 반추를 장려하고 자기 중심의식의 끊임없이 상세하고 복잡함을 탐색해야 한다. 리카드는 명상이 정신적 불균형을 치료하는 것을 돕는다고 말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혼란이 차분함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불교는 가장 훌륭한 심리학이자 과학"이라고 주장한 매튜 리카드.



'애틀랜틱'이 주목한 〈자아 너머〉책. 매튜 리카드와 울프 싱어의 모습이 함께 나온다.▶

리카드는 "불교는 가장 훌륭한 심리학이자 과학"이라고 주장한 매튜 리카드.

리카드의 단언에 처음엔 회의를 보이던 싱어도 이내 불교와 뇌과학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싱어는 "불교의 목적은 인간의 내부 세계로 향한다. 과학은 한 기구의 분해 능력을 높이고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작은 구성 요소로 시스템을 분해해서 현실을 이해하려고 시도 한다"며 불교와 과학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태국에서 이슬람 혐오증 확산

NHK월드, 태국 현지 분위기 전해

일본 NHK월드는 최근 미얀마의 무슬림인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국제 비판에도 동남아 불교국가에서의 반 무슬림 정서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 북부 '난' 주에는 이슬람 사원이 건립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태국에서 이슬람 신자는 전체 인구의 약 5% 가량이다. 이들은 태국에서 이방인으로 간주된다.

태국에서의 이슬람 공동체는 수십년간 불교 공동체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무슬림인 '시타곤 프라드'(Sittagon Pla-ard) 씨는 "불교 신자들은 우리 종교가 아니라 이슬람 사원에 반대한다. 매우 혼란 스럽다"고 말했다.

마을 수장인 '수뎁 분딧'(Suthep Bundit) 씨는 이슬람 사원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이슬람 신자가 증가하면 지역 사회가 폭력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믿는다. 태국에서는 이슬람 신자로 이뤄진 분리주의 반군의 내전으로 10년간 7000 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뎁 분딧 씨는 "우리는 다른 종교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이곳에 살면 남부와 마찬가지로 폭동이 발생 할 것이다. 스님들이 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불교지도자인 '수라팟 타위삭'(Suraphot Thaweesak)씨는 "태국 전역의 사람들은 남부의 반란을 일으킨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며 "태국인들은 이슬람 신자들이 새 이슬람 사원을 세우는 것을 볼 때 마치 이슬람의 침공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 배는 재미 있고 잘 팔린다"



인터넷 매체 FreshPlaza는 12월 21일 중국회사 'Fruit Mold'의 부처님 형상의 배 판매를 소개했다.

'Fruit Mold'는 플라스틱 주형을 통해 과일의 모양을 변형, 배양하는 회사다. 바트 엘 버스 (Bart Elbers)는 중국에서 부처님 형태로 한 배를 개발했으며, 큰 인기를 얻은데 이어 최근 이 금형을 네덜란드로 갖고 갔다.

FreshPlaza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부처님 배는 몇 년 동안 생산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기업들이 다양한 아시아 바이어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부처님 배는 보통의 배보다 맛이 덜하지만 웃는 미소를 띄고 있어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바트 씨는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물 패키지를 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한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은 이런 제품에 대해 더 개방적"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美과학계 불교사상에서 AI윤리 수립한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12월 18일 보도

美전기공학학회가 AI윤리를 불교 사상에서 추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日MIT Technology Review는 'IEEE가 불교에서 AI윤리 지침을 배운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교 사상의 첨단 과학 접목을 소개했다.

이 잡지는 "인공 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 연구에서 윤리적 고려를 우선하도록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들에게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며 "전기공학 · 전자공학 기술학회인 IEEE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글로벌 협업을 통해 AI윤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엘론 머스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오픈 AI (OpenAI)', 카네기대의 AI윤리연구소 개소 등은 이런 노력을 뒷받침 한다"며 "2016년부터 '인공지능 및 자율 시스템의 윤리적 고려 위한 IEEE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그룹은 '윤리에 대한 디자인(Ethically Aligned Design)'을 통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이 그룹 회원들은 불교사상과 서양의 가치 체계를 융합하는 '고전윤리위원회'을 구성하고 윤리 지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훈련

노먼 피셔(젠 프리스트)

〈2〉 공감과 자비심을 훈련하라
– 두 번째 : 상대적 자비심

사랑엔 고통 받아들일 능력도 포함

우리는 절대적 보리심을-즉 삶이 본질적으로 꿈과 같으며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진리를-가르치는 경구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심오한 진리들에 대해 완벽한 통찰을 지니게 되었다고 전제하지는 않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경구들이 의도하고 희망하는 바는, 이에 대한 사색을 통해 이 진리를 존중하여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공감과 자비심 훈련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그 두 번째 부분인 상대적 보리심은 더 실제적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상대적 보리심이 어려운 이유는, 이 불완전한, 진짜 모습 그대로의 세계에서 실제 사람들을 진짜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데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즐기다가 둘 사이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은 확실히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분명히 사랑은 즐거운 만큼 불쾌하기도 하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 자신이 불쾌해지거나 불쾌한 일을 겪으며, 그런 때에 그들이나 그들이 처한 상황이 불쾌해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애초부터 충분치 못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랑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수용할 능력을 요구한다. 상대적 보리심이 멋지면서도 그만큼 어려운 이유가 그것이다.



보내기와 받아들이기

'마음 훈련의 일곱 가지 요점'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보내기와 받아들이기(통렌)라고 부르는 명상 수행을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모든 종교와 모든 불교 종파는 나름의 문화적 편견을 지니고 있으며, 선불교-특히 내가 속한 일본(조동종)-의 편견은 바로 기법을 배격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선불교에서는 명상과 명상이 아닌 것의 차이마저 부정한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특수한 기법을 수련하더라도 그 세부에 대해 너무 염려하거나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고 언제나 이를 아주 가볍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기법은 유용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법을 배격하는 편견과 적극적 호기심에 찬 유연한 정신을 겸비한 상태로 보내기와 받아들이기 수행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수련을 설명하는 두 개의 경구가 있다.

'보내기와 받아들이기를 교대로 수행하라.'

'나로부터 보내기와 받아들이기 수행을 시작하라.'

보내기와 받아들이기는 자비심을 직접 계발하는 수행법이다. '자비'의 영어 번역어 'compassion'이 "수난을 더불어 느낀다(to feel passion with)"는 뜻임을 기억하라. 수난은 고통을 의미한다. 자비는 타인과 더불어 고통을 느끼려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려는 의지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 그리 능하지 않으며, 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편을 더 선호한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없애는 데 너무 열중하여 스스로에게 그것을 느낄 틈을 주지 않는다. 그 결과,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데 무능해졌으며, 자기가 아주 자비롭다고 여길지 몰라도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데는 무능해졌다.

한 번이라도 신체적 · 감정적으로 아프거나 자비로운 보살핌에 목말랐던 적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친절한 말을 건네지만 그런 친절은 대부분 건성이거나 과녁에서 빗나간 것처럼 보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 것은 좋게 느껴지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들은 분명 선의를 품고 있으며 그들의 친절이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나의 고통을 진실로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내 기분을 띄워주고, 해결책과 권고, 기분 좋은 말, 기분 전환용 선물 등을 써서 어떻게든 나를 돕고 싶어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일-내 고통을 느끼고 인정하는 일-을 할 능력이나 의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고통 또한 두려워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그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며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겠지만

사랑은 즐거운 만큼 불쾌하다
이마저도 수용해야 진짜 사랑
안 되는 일 해결하려 집착 말고
치유의 원재료로 이용해보자

말이다.

보내고 받아들이는 수행의 주된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여러분의 가슴이 평소에 원치 않는 일-나 자신의 삶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멀리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다.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을 향해 가슴을 여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 수행은 이를 경험적 진실로 만들어 줄 것이다.

보내기와 받아들이기는 절대적 보리심의 경구인 '마음을 열어 놓고 쉬어라'로 시작하고 끝난다. 편안하고 힘이 되는 이 휴식은 이 수행에 따르는 힘든 과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기반이 된다. 우리는 시작할 때에 여기서 용기를 얻고, 끝날 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 쉬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마음을 열어 놓고 호흡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것 외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하라. 이때 우리는 현실의 물 위에 둥둥 떠서 흘러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숨을 들이쉴 때에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도 들이마신다. 고통과 괴로움을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물체나 연기 같은 것으로 형상화하여, 그것을 들이마셔서 몸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물론 숨을 들이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쉬기도 한다. 우리 몸은 이 끈적거리는 물질과 괴로움과 고통을 가벼움과 평안과 평화로 변환하여, 콧구멍과 우리 몸의 구멍을 통해 옅고 향기로운 안개의 형상으로 내보낸다.

이 수행은 처음 들었을 때는 벅차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의 요점은 완벽히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라. 고통을 들이쉬고 안도를 내쉰다는 기본 개념만 있으면 이보다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다.

제거 대신 상황 전환을

상대적 보리심의 다음 경구는 다음과 같다.

'상황을 전환하라.'

나는 이 경구의 전통적 형태-세 가지 대상, 세 가지 독, 세 가지 덕의 씨앗-를 이렇게 간단히 수정해보았다. 삶에 혼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대신 이용하라. 이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어차피 먹히지 않는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 경구는 세 가지 대상과 세 가지 독이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문제도 덫도 아니고, 세 가지 선의 씨앗이며 세 가지 미덕의 씨앗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좋고 싫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곤경이 멋지고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이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모든 것에는 우리를 크나큰 기쁨과 깊은 영적 충만으로 인도하는 잠재력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이 경구를 옮겨 적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좋고 싫음이 고통을 일으켜 짜증나거나 속상할 때에 머리에 떠올리면서 수행할 수 있다. 이 수행은 그 순간 우리가 작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를 믿지 못하고 이 시점에서는 별 흥미를 못 느끼더라도 이 경구를 수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잠시나마 한탄을 멈추고, 지금 휘말려 있는 이 고통 속에 좋고 긍정적인 어떤 것이 잠재돼 있을 수 있음을 상기하게 해줄 것이다.

이 경구가 보내고 받아들이는 수행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이 수행은 이 삶에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관문임을 보고 느끼게 하는 훈련이다. 고통을 피하거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할 때 이를 마주보고 들이쉬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수행을 통해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덤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싫어하는 일,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를 불평하거나 (바꿀 수 없을 경우) 헛되이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마치 자신이 희생자인 양 탓할 사람을 찾거나 탓할 사람과 다툴 필요도 없음을, 그 대신에 나는 깊고 진심 어린 수용과 사랑의 감각을 지닐 수 있으며, 곤경을 들이쉬어 내 몸을 통해 그것을 평안과 치유로 변환할 수 있음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변화와 치유의 원재료로 이해한다고 생각해보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상대적 보리심의 경구들은 심오하고 어렵다. 또한 오랜 기간의 수행과 끈기, 성실, 힘을 요한다. 마치 이 점을 인정하는 듯, 이 절의 마지막 경구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단순한 내용이다.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 경구들로써 끊임없이 수련하라.'

이 글은 〈마음-훈련 미친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기 위한 59가지 매뉴얼〉(도서출판 팡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대행 스님

내 내면세계 그 깊은 마음속의 해결력을 믿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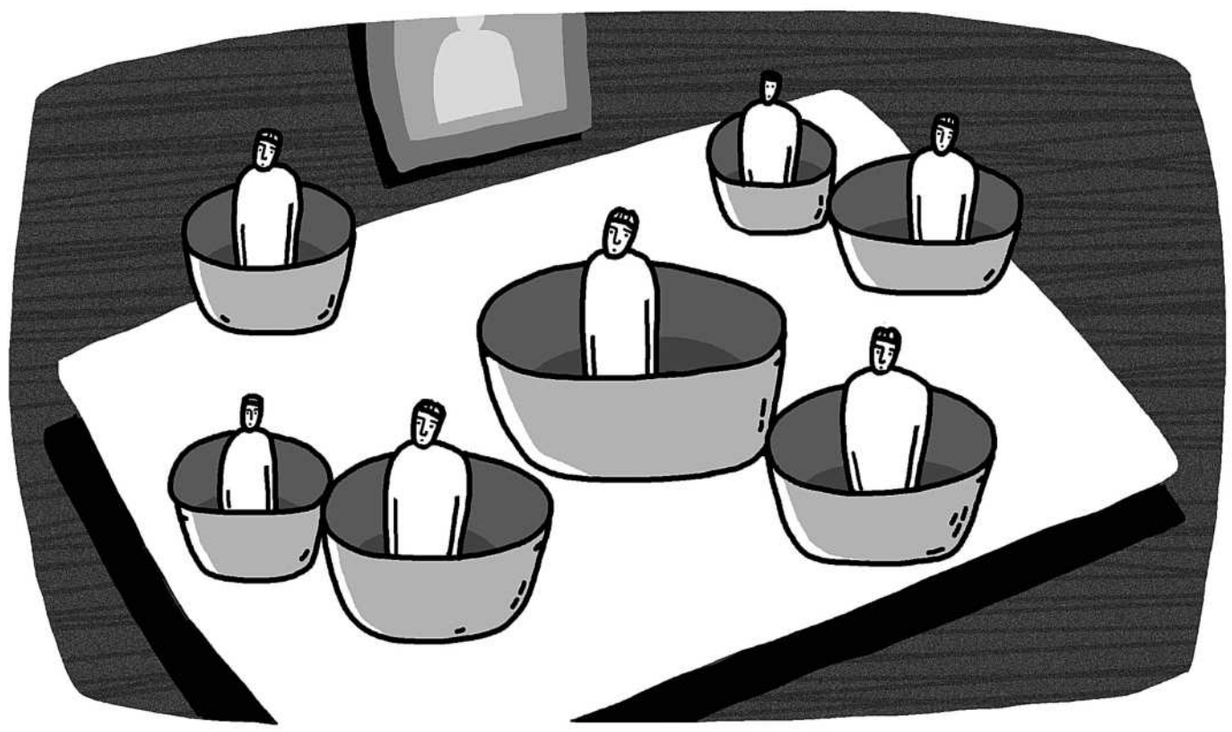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마음 주인공에 대하여

질문 대행 큰스님께서는 늘 한마음 주인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간혹 불성(佛性), 자성불(自性佛), 자성(自性), 법신(法身)이라는 용어도 쓰셨는데 한마음과 불성, 또는 법신, 주인공과 자성 또는 자성불 사이에 의미상으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큰스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용어들을 저희가 특별히 구별해서 들어야 하는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마음!" 한다면, 이게 말을 하자면 길지요. 허허허…. 태어나기 이전부터 악업이나 선업이나 업식이 뭉쳐서, 사람으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든 태어나기만 하면 '고(苦)' 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다 업식이 돼서 몸 안에 전부 부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이 많은 업식의 문제들을 어떡하면 한데 합쳐서 한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업식이라는 거나 마음이라는 자체, 의식이라는 자체는 체가 없는 겁니다. 체가 없죠? 체가 없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한다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이라는 건 평등(平等), 평등성을 말하죠.

예를 들어, 아파서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을 냈다면 그건 자연적이죠, 아프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을 냈을 때는 바로 불성으로 돌아가죠, 불성으로. 그 마음을 한데 합친, 그러니까 불기둥이라고 해도 되죠,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불(佛)이니까요. 마음들이 한데 모아지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이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 주인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요. 개념은 조금조금씩 달라도 한 얼굴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듯이 말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다 한 얼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듣고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끄달리지 마시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즉 고정됨이 없이 나로부터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로부터. 그러니까 나로부터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변함없이, 나 자체 불성은 꿈쩍도 하지 않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데, 돌아가는 마음 자체가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있죠. 그거를,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런 게 둘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론으로 헤아리기 이전에, "아버지!" 하고 불렀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지 따로 있습니까?" 하고선 그렇게 "아버지!" 하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전체 포괄적인 뜻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름이 부처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무생실참의 도리, 이걸로써 자기가 자기를 자극하면서, 자문자답하면서 오직…. "밥 먹었나?" "예, 그릇 닦았습니다." 하하하…. 자기가 불러 놓고 자기가 "밥 먹었나?" "예, 그릇 닦았습니다." 하는데,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릇 닦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참의 도리를 아마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연구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아! 바로 나는 지금 유생(有生)이 아니라 무생(無生)이다. 무생이 있음으로써 유생이 있는 거지, 유생이 있어 가지고 무생이 있는 게 아니다. 무생은 바로 귀신 방귀씨와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하하하…. 씨는 없으면서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있으면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심봉으로 탁 꽂아서 움쩍 안 하면서도, 조금도 어김없이 돌아가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참 묘한 도리입니까.

천도재에 어떻게 마음을 내는지요

질문 절에서 예불 끝나고 나서 가끔씩 천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옆에 남아서 같이 마음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우가 그렇게 천도재 지낼 때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체를 다 둘로 보지 않고, 영가도 나와 둘로 보지 않고, 또 천도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 자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로지 그 근본 자리에서만이 진리의 세계로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관(觀)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올바로 대답을 한 것인가요?

답변 내가 재사를 지내거나 천도재를 하거나 이럴 때 왜 떡을 둥그렇게 몇 조각 해 놓으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반찬을 해서 놓고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 묶어 놓으려면 반찬들을 해 놓고 그렇게 뚱땅거리고 지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부처님하고 한자리를 하게끔 하려면 그냥 둥그렇게, 그것도 안 해 놔도 되는 건데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둥그런 떡을 하나 해 놓고 삼색 과일만 한 그릇에 그냥 놓고 초 향만 켜고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살면서 지어 놓은 그 먹고 살던 습이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죽어서도 자기가 먹고 살던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뭘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먹지도 못하면서도 먹게 해 달라고 하고 성가시게 굴거든요. 성가시게 군다 하더라도 잘되기만 하면 좋은데 잘못됐으니까 성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양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하나 해 놓고, 지내는 사람이 떡 안에 다 한마음으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면 벌써 떡 하나예요. 한마음 하면 떡 하나로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령들을…. 이런 좁쌀 알갱이 하나에다가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넣어도 이게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똑 알맞고, 일체제불의 마음을 이 큰 그릇에다가 넣어도 또 크면 큰 대로 차고 작으면 작은 대로 차고, 아주 그렇게 여여하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부모에게 재사 지낼 때에 조상들이 살 때의 그 습기를 다 떼게끔 내 마음과 둘 아니게 만드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상의 마음도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굴려서 놓으면 거기에서 굴려서 다 세척이 되듯이 깨끗하게 모두 나오죠. 왜, 세탁소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빨래가 돼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이 된단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그 떡 하나도 족하다 이런 말이죠. 이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는 되남더라 이런 말이에요.

'기'란 무엇이며 불법 공부와의 관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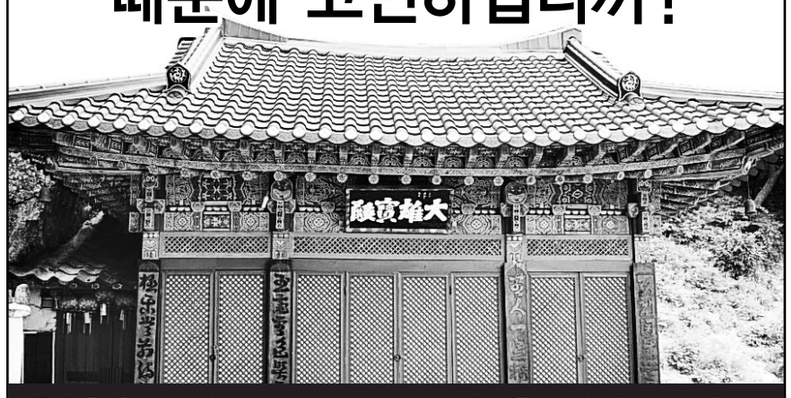
질문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행법 중에는 몸의 기를 다스리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공법을 수련하는 것과 불법 공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기'란 무엇이며 불법 공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기'라는 건 옛날에도 그렇고, 스님네들 아니더라도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를 가지고 몸을 다스렸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거는 기를 단전으로 해서 기를 이렇게 모아서 풀어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세상에 어려우냐. 지금 단전을 하고 기를 모아서 제대로 하질 못했기 때문에 병이 든 사람이 무지하게 옵니다. 머리로 기가 그냥 올라가서 영 일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없나, 몸이 비틀리는 사람이 없나, 그냥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귀로다가 그냥 그 뜨거운 게 그냥 막 쏟아져 나온답니다, 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가정에 아주 파탄이 오게 되는 사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몸의 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몸의 기를 잘 다스리려면, 정돈을 하고 다스리려면 바로 몸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작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법(觀法)입니다. 그거는 몸을 다스리는 거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든 그 의식들, 생명들 그것들이 아랑곳이 없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작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써 내가 꼭 '너만이 알아.' 할 때에 '아, 너고 나고 없구나. 모두 나야!' 하고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 A18면으로 계속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밥 죽순 식물성 탄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임해 밥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임해]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나와 둘이 아닙니다

☞ A17면에서 계속

러니까 이 마음에다 놓으면 이 누진(漏盡), 머리로다가 통신이 돼서 그 머리로 통신이 되면 하달이 돼 가지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신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을 만하냐. 이거는 그 속에서 이 주인공 자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작용을 해 주는 거죠. 저기서 모자라면 여기서 보태고, 여기서 모자라면 저기서 보태고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깐 몸을 건강하게 다룰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살이 쪘으면 살을 뺄 수도 있고, 살을 찌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잘못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몸뚱이 떨어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몸이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행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나무, 즉 무정물들도 또는 저런 과일 나무들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 마음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 가면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용이죠. 그러니 몸도 얼마든지 자재로이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모두 잠재의식이 관습에 의해서 돼 있고,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도 다 그냥, 그냥 탁 맡길 수가 있습니다.

놓고 가다 보면 모자란 사람 같아…

질문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놓는 것은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진 상태일 때 놓는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닥치는 그대로, 닥쳐서 생각나는 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고민할 것도 없고 안타까워 할 것도 없어서 때로는 무덤덤하고, 달리 생각하면 그저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남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속에서 놓고 가는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론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고, 능력이 없거나 이상한 태도로 비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르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똑똑한 놈보다 좀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 싹을 틔운다고요. 부처님께서도 아주 모르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 만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던 사람에게 빗자루 하나를 주고 쓸라고 해서 그 마음을 틔게 한 사실도 있듯이….

그래서 '앞도 뒤도 없다' 하는 이 뜻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이 돼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그 씨는 없어지죠. 씨는 싹이 돼 버렸죠, 벌써. 그 씨가 또 되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연방 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과거는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은 공(空)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없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붙을 것이 있습니까? 모두 여러분이 지어 가지고 창살을 만들어 놓고 나오지 못해 애를 쓰고 그러는 거지, 그 마음에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나오면서 관습에 의해서, 이사를 가면 뭐, 동쪽으로 가야 되느니 서쪽으로 가야 되느니, 손이 달렸느니 발이 달렸느니, 하하하…, 또 삼재가 들었느니 온통 자기네들끼리 그 관습을 그냥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매달려 가지고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무것도 붙을 게 없는데…. 다들 안 그렇습니까? 참 이상스러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왜 그렇게 그 관습을 따라야 하는지. 마음에는 붙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떼지 못하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음을 걸어오거나 말을 하거나, 만나든가 먹든가 모든 것을 하면서 가정에서 살아도 그게 어디 붙을 게 있습니까? 금방 "아버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돼 가지고 그냥 하고, 또 "여보!" 그러면 그냥 남편이 돼 가지고 금방 돌아가고,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이 돼 가지고 돌아가고, "아무개!" 그러면 친구로 돼서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 그냥. 붙을 게 없이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힘이 부족하니까 마음으로 '어이구! 저 친구가 저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걸린단 말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는 게 걸리면 거기다 놓고 '둘이 아닌 까닭에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놓고 유하게, 부드럽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 편안하고, 그쪽으로 이심전심으로 돌아가고, 사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놓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묘한 도리라는 게 뭐냐 하면 저쪽 사람이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쪽 사람이 '아유! 그러는 거 그저 주인공만이 풀 수 있어.' 하고 놓고 미워하질 않고 부드럽게 말해 주니까 아, 금방 그쪽에서 오므라졌던 게 펴져 가지고는 선물도 하고, 그냥 좋아지더랍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모르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얘깁니다, 이렇게 쉬운 법을.

부처님께서 생활 속에서 바로, 과학이 따라갈 수 없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왜 자꾸 모른다고 합니까? 그리고 놓지 못하는 겁니까? 놓고 돌아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걸리는 거예요. 아까 돈벌레 갈 때에 잘 가더라고 그랬죠. 잘 가면서도 누가 말을 하면 꼭 걸리는 거예요. 하하하…. 여러분이 잘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고삐를 쥐고 소가 남의 파밭에 들어가거나 남의 농사지어 놓은 데를 들어가거나 이런다면, 고삐를 잡아당겨서 다스려 가면서 끌고 가야 되니까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라 이 소립니다. 잘못 나가 걸랑은 다스리고, 잘 나가걸랑 감사하게 생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봅니다. 그게 그대로 놓고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누가 붙들고 오셨습니까? 발자취를 지금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차가 굴러오는 거지금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 **모두 잠재의식이 관습에 의해서 돼 있고,**
>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꼭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 저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꼭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이 될는지요. 어떤 분들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단지 나와 내 가정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여유 있고 하는 몇 가지 항목만을 집중적으로 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다운 불법이 아니라 또 다른 기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러분의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라는 재료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있으니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가서 빌지 말고 내 내면세계 그 깊은 마음속의 해결력을 믿어 보세요. 아픈 것도 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산다면 자기 내면이 그대로 의사가 됩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찰나에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칠성이 됐다가, 지장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용신이 됐다가, 이렇게 한생각에 마음이 찰나찰나 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바로 네 마음 한생각에 물리가 터지고 모든 것을 항복을 받아서 모두 내줘도 줄지 않고 들여놔도 두드러지지 않는 이런 세계를 파악한다면 삼천대천세계가 한 주먹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해서 내 몸속의 중생들을 제도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데 목적을 두십시오.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은 즉시 무에서 유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99%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돈이 드니 마음을 그렇게 못 씁니까, 피곤하니 마음을 그렇게 못 씁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참선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로 자기 자리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로 그것이 좌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요, 마음이 복잡하면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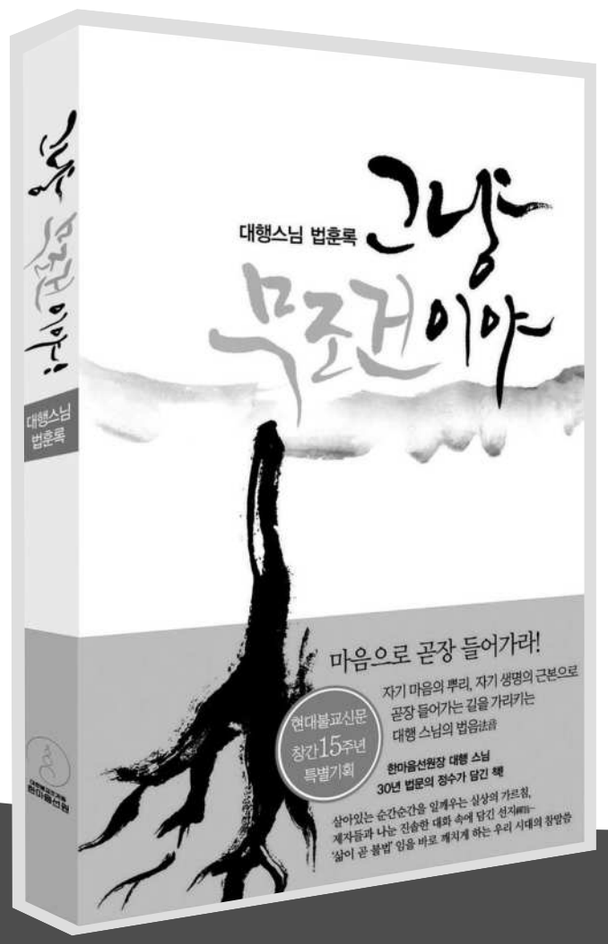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고무줄 같은 인생에 뜬구름 같은 이 모습이 다 흩어지고 나면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신력, 나의 마음의 차원을 그대로 가지고 또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물질로 치달아서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이 죽어도 그 의식, 영혼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말하자면 몸에 있는 중생을 제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과로써 뭉친 선악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로 눈앞에 보이니 한 발짝도 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착이 줄줄이 붙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몸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영혼들이 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배 오기를 기다리고 죽 섰으니, 오백 생을 기다린들 배가 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한 항아리 속에서 지금 구르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가지 못하니까 불교에서는 "저 언덕을 넘어서 저 물을 건너가세. 같이같이 건너가세." 하는 뜻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 것도 역시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자기의 좋고 나쁘고 한 그 마음, 자기로부터 수북하게 나오는 그 악마 같은 마음, 요만한 것 가지고도 괜히 신경질 내는 마음, 남의 탓을 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 이것들이 그냥 배어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생전 가도, 오백 생이 가도, 천년만년이 가도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몸이 내 몸이니 둘이 아닌 까닭에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놓고 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일정례를 올리더라도 마음을 둥글려서 내가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어디다가 절을 해도 바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고깃덩어리에다가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해서 내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를 잘되게 하려면 우주를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를 조절하려면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요, "말아라" 해서 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인 것입니다. 무슨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보이는 데서 남한테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욕심에 처해 있는 거고 상인이 물건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주상 보시를 하되 함이 없이 하라' 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지금 과학도 물질 만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린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정신계를 무시한다면 아마도 살기가 급급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적었던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걸 보십시오. 또 화산이 일어나도 과학자들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 연구함으로써 많은 이득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과 오고 감이 없는 오신통 자체가 바로 재료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한 해를 보내며 |

가난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맹난자
수필가

고지식했던 아버지의 딸이었던 난
호사 같은 것을 누릴 수가 없었다
수학여행 대신 갔던 덕수궁 산책서
맑은 가난 속 자유가 왠지 뿌듯해

수필가가 돼 첫 수필집 발간 당시
법정 스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는
"가난이 우리를 이만큼 키웠다"

배고픔 모르면 남의 배고픔 모르듯
남의 아픔 같이 느끼는 것이 자비
헛것 아닌 성스러운 샘물을 키우자

아침 뉴스에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의 구형 25년과 벌금 1185억 원이 발표되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 그녀의 '억' 소리에 나는 '일조진(一朝塵)'이 떠올랐다. 욕심껏 모은 돈이 기껏 하루아침의 티끌이라니. 자고로 분(分)이 아닌 복과 까닭 없는 돈은 횡재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했던가. 수갑을 찬, 한때 실세였던 사람들을 보니 〈채근담〉의 일구가 떠올랐다.

"도덕을 지키는 이는 일시 적막이나, 권세에 아첨하는 자는 처량 만고라." 선인들의 말씀은 틀린 데가 없었다. 그래서 달인은 '물외지물(物外之物)'을 보고 '신후지신(身後之身)'을 생각 하나니 살아 있는 몸보다도 죽은 뒤의 이름을 걱정해야한다고 하셨다. 한때의 적막을 받을지언정 만고(萬古)의 처량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다.

나는 변통없고 고지식한 아버지의 딸이라서 호사 같은 것에는 일찍이 물들지 않았다. 첫 번 째는 기차에서 의문사한 야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와 가깝다는 밀고로 옷을 벗어야 했고, 두 번째는 공금을 강요한 상사의 구속으로 면직되었다. 저축도 없이 실직당한 가장에게는 가솔이 딸려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들고 시외 어느 파출소로 찾아가 그걸 건넸고, 답장을 받아왔다. 내 등록금이 들어 있었다. 그 후론 아버지께 나는 어떤 요구의 말씀도 드리지 않았다. 친구들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남은 아이들은 모여서 덕수궁 산책을 하게 했다. 이른 아침, 고궁의 뒤뜰에서 만난 고요한 마음의 평정, 맑은 가난 속에 포함된 자유가 어린 마음을 뭔가 모르게 뿌듯하게 했다.

1969년부터 '신행불교'의 편집일을 맡아 10년간 봉직하는 동안 언론매체에서 청탁이 왔었고 발표된 글에는 '수필가'라는 호칭이 뒤따랐다. 이름의 도(盜)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나는 수필가가 되었고 1996년 첫 수필집 〈빈 배에 가득한 달빛〉을 출간 하였을 때 법정 스님께서 보내주신 엽서에는 낯익은 만년필의 굵은 글씨로 이렇게 씌어 있었다.

"가난이 우리를 이만큼 키웠습니다."

스님은 '내 가난'을 편드느라고 '우리를'이라고 덧붙이는 배려를 잊지 않으셨다. 내가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69년 봄, 조계사 근처 어느 지하 다방이었는데 그때 합석한 홍정식 선생님은 스님께 내 취직을 부탁했고 덕분에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신문'에 잠시 취직해 다닌 적이 있다.

미당 선생은 자신을 키운 것은 8할이 바람이라고 했으나 돌이켜보면 나를 키운 것은 법정 스님 말씀대로 가난이 맞는 것 같다. 분(分) 외의 것을 바라면 죄를 짓게 되거니와 또한 남을 원망하게 된다. 조금 덜 갖고 덜 쓰는 편이 내겐 훨씬 쉬웠다. 나는 한 끼 밥이 어려웠던 작가들이나 고흐를 생각할 때가 많다.

따뜻한 불빛 아래 식구들과 식탁에 둘러앉으면 평범한 일상사가 왜 이렇게도 어려웠을까, 그리고 한편 이 작은 평화에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된다. 전도가 양양하던 젊은 가장의 실직은 가족을 불우한 그늘로 이끌었다. 사실상 가난의 대물림에서 용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불우함을 넘어서려면 불우함을 싫어하지 않아야 하고 가난을 넘어서려면 가난을 싫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주(周)나라 문왕은 유리옥에서 저 유명한 〈주역〉의 괘사를 썼고, 다산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썼다. 사마천도 불우함 속에서 〈사기〉를 썼다. 나는 험난한 때를 어떻게 보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근심'과 '곤란'에 '가난' 하나를 더 보탠다. 배고픔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남의 배고픔을 알지 못한다. 남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이 자비가 아닌가.

하루아침의 티끌 같은 '헛것'에 매달리지 말고, 맑은 가난 속에서 성스러운 샘물을 키워나가자. "가난이 우리를 이 만큼 키웠습니다." 내 가슴속 깊은 샘물에 떠 있는 달이다.

발언대
종교 자유 관련 개헌 제안

폭력적 전도, 방지 대책 필요하다



선진규
봉화산정토원장

우리나라 2015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한다.

종교의 종류도 다양해 다종교사회라 칭하고 있다. 종교의 헌법적 보장은 '종교의 자유'라는 항목에 법적보장을 받고 있으나 그간 비대하여진 종교의 자유는 도를 넘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 자유의 본래 정신이 상실된 채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범법 사건이 종교인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종교간 대립이 상상을 초월한 위험 수위를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웃종교 시설물에 들어가 땅밟기, 성물(聖物)훼손, 방화 심지어는 욕설, 위협적 폭언 등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거리에 확성기를 달아놓고 일상생활에 전념하는 시민에게 "믿지 아니하면 불신지옥에 떨이진다"고 외치며, 학교나 상징적인 장소에 안치되어있는 단군상을 우상이라며 목을 날리는 폭행을 서슴치 않는다.

어느 학교 교사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우상을 안치한곳에 마귀들이 득실하고 있는 곳이니 가지말라"며 이웃종교 성직자들을 '사탄'이라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고 한다. 군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믿지 아니하면 군대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항설들은 새삼스럽지 않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자기종교 확장의 방편으로 삼는 폭력적 전도행위는 종교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던 서울시장은 청와대에 입성해 종교 집회를 수시로 열어 편파적 종교행위를 했으며, 맹신적 정치인들 중에는 정치모임에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예는 다반사로 볼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제 방종과 폭력, 온갖 비리로 멍들고 있다. 사실상 자유라는 언어에 포장돼 본래의 뜻이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종교 사회의 정신문화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정신문화의 대립적이며 투쟁적인 혼란이 사회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는 종교 형태를 헌법에서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 제20조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초안을 제시한다.

모든 국민은 다종교사회 서로 방해 없는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헌법 제20조 1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구별되고 일체 공직에 종교는 중립된다.(헌법 제20조 2항)

社說

탈북민에 안 닿는 '중생무변서원도'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불자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10년 전 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무종교인의 절반에도, 개신교계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이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후 가장 먼저 거주하는 국정원 조사시설(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포교하는 스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되레 불자가 늘어난 것은 일선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포교사들의 노력 덕분이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사바세계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을 구제해 생사해탈의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는 사홍서원의 제1서원. 이는 대승불교의 근본 원이자 법회를 비롯한 한국불교 의식에서 반드시 외는 서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전혀 닿지 못하고 있다. 불교를 이끌어갈 승가가 앞장서 손길을 뻗어야 함에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은 점은 반성할 일이다.

극도로 억압된 북한사회를 떠나 자유대한민국에 발을 들인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심리적 안정과 정착 지원이다. 누구보다도 종교인이 먼저 나설 일이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개신교 봉사단이 봉사 제한인원을 가득 채워 북적이며 사람 냄새를 풍길 때 불교는 봉사자마저 드물어 민망하다는 포교사의 하소연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언제까지 철학적인 물음을 갖고 찾아오는 이에게만 포교할 것인가.

법당에 붙은 두 발을 떼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을 찾아가자.

목마른 이에게 감로수를, 상처받은 이에게 감로법문을 전해 불국토 건설에 일조하자.

조계종 사노위 3기 출범에 부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가 3기를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노위 3기 실천위원에는 대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스님들을 비롯해 권승복 前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박문진 前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나라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집행위원장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등 노동 · 인권 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노위 3기 출범과 함께 국가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범위를 넓힌다는 점도 기대를 모은다.

특히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이념갈등이 잔존하기는 하지만, 제주 4.3사건의 근본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이다. 이는 불교계 최고 법난(法難)으로 기록되는 10.27법난과 그 궤가 같다. 사노위는 서울서 처음으로 열리는 광화문 4.3사건 추모행사에 참가해 위령재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전쟁 중 한국 군인에게 학살된 민간인을 추모하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한국군에 의해 이뤄진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들에게 참회 · 추모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새로 출범한 조계종 사노위가 전개할 사업들은 하나 같이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와 함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중앙종무기관, 사찰 종무원 등 불교계 내부 노동에 대한 실태를 살펴줬으면 하는 점이다. 불교계 외부 노동 인권 상황을 위해 노력하는 사노위지만, 불교계 내부 노동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최소한의 상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도 사노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불교계 안팎의 인권을 살피는 역할을 조계종 사노위가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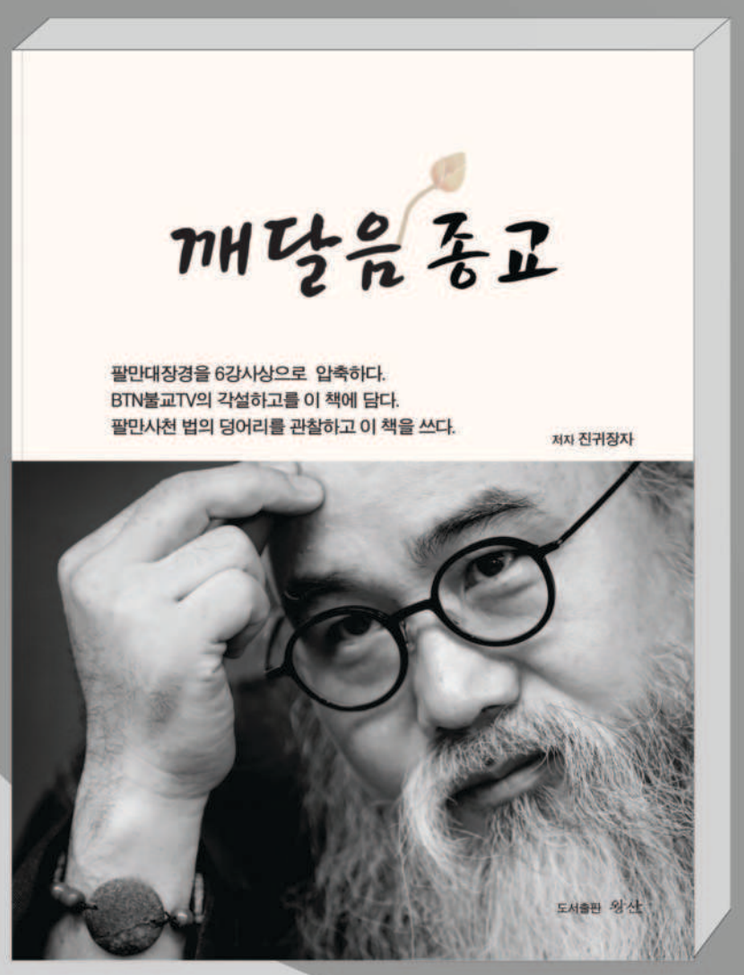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BTN 불교tv에서 진귀장자가 강의한

'각설하고'가 드디어 책으로 출판되다



총페이지 : 320P / 가 격 : 30,000원

깨달음 종교는
BTN 불교tv에서 진귀장자가
대본없이 프리토킹으로 강의한
〈각설하고〉의 방송 편집전 원본 파일을
책으로 옮긴 것입니다.

제1강 사성제 四聖諦
제2강 법화사상 法華思想
제3강 반야사상 般若思想
제4강 유식사상 唯識思想
제5강 화쟁사상 和諍思想
제6강 화엄사상 華嚴思想



깨달음 산문에서
진귀장자의 수인수행법 강의를
수강하신 분께는
진귀장자가 강의한
〈각설하고〉의 방송 원본USB
파일을 선물로 드립니다.

책소개

석가를 품은 53覓 - 화두집



- 총페이지 : 174P(단권)
- 케 이 스
- 가 격 : 30,000원

대방광불화엄경 - 강의집



- 총페이지 : 1700P(단권)
- 케 이 스 : 인조가죽+지퍼
- 가 격 : 300,000원

대방광불화엄경 - 사경집



- 1 세트 : 총 12권(약3000P)
- 케이스 : 비단케이스+보자기
- 가 격 : 300,000원

※2018년 1월부터 전국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1899-9532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영혼 담긴 바이올린 선율로 번뇌 '사르르'



콘(KoN)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를 졸업했고, 한국 최초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이자 뮤지컬 배우,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2010년 첫 앨범 'Nuevo Gypsy(누에보 집시)'를 발표했으며, 뮤지컬 '모비딕', 'FAME' 등 다수 뮤지컬에 출연했다. 2012년 일본에서 'Nuevo Impacto(누에보 임팩토)'를 발표했으며, 드라마 '스즈코의 사랑', '붉은 실의 여자'에 출연했다. 국내외의 각종 음악 페스티벌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JTBC '히든싱어 시즌3'의 이적 편 우승했다. 2011년 일본 데뷔에 이어 2015년 중국, 2016년에는 헝가리에서도 공연활동을 시작하며 명실상부한 한류 아티스트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추계예술대학교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하지권 사진전 '절집, 세 번째 이야기-해인사 강원'

B6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나치산 세이간토지

산문 밖의 禪

KoN 바이올리스니스트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오랜 세월 인류 곁에 있는 것 중의 하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인류의 삶에 깊이 관여해 왔다. 위로해 왔다. 그래서 음악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오래 전부터 우리는 슬프거나 행복할 때 노래를 불러야 했고, 음악을 들어야 했다. 해서 음악을 만들고 들려주는 일이야말로 공덕 중의 공덕일지 모른다. 음표 위에서 고민하는 일이야말로 커다란 이타일지 모른다. 자신의 음표가 이타가 되기를 바라며 음표 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가 있다. 이미 '한류'의 이름이 된 그 이름은 우리나라 최초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 KoN(콘 · Korean on the Note-음표 위의 한국인)이다.



2016년, 헝가리 집시음악 콘서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공연하는 모습.

어머니의 불교 나이테로 자라

BBS 송년음악회 첫 불자 무대

주석 스님과 인연 부산 공연으로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화두

"'나' 비우고, 가득 찬 음악 하고파"

음악으로 불자와 만나다

2017년 11월 24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 영화 '대부'의 '사랑의 테마(Love theme from the Godfather)'가 흐르고 있다. 작은 바이올린 하나가 빚어내는 선율에 무대와 객석은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바이올린의 주인은 KoN(이하 콘). BBS 불교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주석 스님의 마음대로 라디오-이하 마음대로'가 마련한 'Memories 2017 송년음악회'다.

이날 콘은 올해의 성악가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김지현, 팬텀싱어 시즌2로 유명한 바리톤 김주택, 피아니스트 이영민과 함께 출연해 영화 대부의 '사랑의 테마'를 비롯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의 회전목마', 헝가리언 댄스 No.5를 연주했으며, 앵콜로 이적의 '걱정말아요'를 노래했다.

"왠지 절에 가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경건해지고. 그 날의 공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서는 무대이지만 왠지 그날은 산사에 간 것처럼 왠지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느 무대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왜 그는 그 무대를 다른 무대와는 다른 무대로 느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난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절마당의 적요를 알고, 처마 끝에서 들려오는 풍경소리를 들을 줄 알고, 좌복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신성한 시간을 살아봤기 때문이리라.

중국, 일본, 헝가리 등에서 이미 한류의 이름이 된 콘은 그 동안 수많은 무대 위에 섰지만 불자들과 함께 하는, 불자를 위한 무대는 처음이었다. 산문에서의 시간이 산문 밖과 다르듯이 그 날의 무대는 콘에게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콘은 불자들과 음악으로는 처음 만났다. 그날 콘의 이름은 BoN(본 · 음표 위의 불자-Buddhist on the Note)이었다.

어머니와 불교

"그날 절에 가면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좋았죠."

콘이 음악으로 불자를 만나고, 그 무대를 색다르게 느꼈던 것은 관객이 불자들이어서만은 아니다. 본인이 불가의 정서를 지니고 있기 때이다. 고요한 마당과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없이도 무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 초파일날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였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었고, 그곳에서 큰스님들을 보았고, 어머니와 법문을 나누어 들었고, 좌복 위에서 잠이 들었던 아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불교를 보며 자란 아이였다.

"어릴 때였어요. 한 살 위인 형이 많이 아팠어요.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형의 병세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콘에겐 형이 한 명 있다. 콘과 콘의 형이 네 살, 다섯 살 때였다. 열병에 걸린 콘의 형은 가망이 없었다. 콘의 어머니는 나무가 하는 말이라도 들어야 할 형편이었다. 불심이 깊었던 콘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기댄 것은 부처님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콘의 어머니는 입에서 입으로 건너온 어느 스님의 이름을 듣게 된다.

"어느 날, 어머니의 도반이 어머니께 스님 한 분을 소개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나보라고."

콘의 어머니는 그 날로 길을 나섰다. 기차를 타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스님의 이름을 찾아갔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였다. 콘의 어머니는 스님을 만났고, 콘의 형은 건강을 회복했다. 그것이 우연이든 가피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콘에게 분명한 '나이테'가 됐다. 그런 나이테를 가진 콘에게, 더구나 그 섬세한 음악을 하는 콘이었기에 그 객석의 미묘한 설정 하나가 콘을 산사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지는 불연

콘은 12월 24일 부산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카페에서 공연을 했다. 쿠무다의 주인은 다름 아닌 '마음대로'를 진행하는 주석 스님이다. 그렇다. 그 공연은 주석 스님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송년음악회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콘은 BBS '마음대로' 송년음악회에서 스님을 처음 만났다. 불과 한 달 전의 일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인연 같아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요."

불연은 그런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기다린 시간이 있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 같지만 불현듯 다가오는 것이 불연이다.

B2면에 계속

“나의 음악이 누군가의 위로 되길”


2015. 10. 4. 콘이 윤형렬의 나눔콘서트 ‘동행’에서 콘서트명과 동명인 자신의 자작곡 ‘동행(Going together)’을 연주하고 있다.

‘KoN 바이올리스니스트’

B1면에서 계속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불연인 것이다. 콘과 주석 스님과의 인연 역시 그렇다. 그것을 불현듯 다가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콘의 지난 삶과 출가 수행자인 주석 스님의 삶을 놓고 보면 반으로 쪼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쿠무다’ 무대는 콘의 불자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사실 무대의 크기만 놓고 보면 콘에게는 작은 무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oN이 아닌 BoN에겐 작지 않은 무대다.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위로’라면 음표 위에서 고민하는 이에게 ‘큰 무대’와 ‘작은 무대’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KoN이 하고 싶은 음악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무대가 있어요. 30분, 1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연주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연주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그는 늘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 그리고 늘 그럴 수 없어서 고민한다. 그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것이 콘이 하고 싶은 음악이라고 했다. ‘나’를 모두 없앤 음악. 하지만 그런 콘으로 가득 찬 음악. ‘나’는 비우고 음악은 가득 찬. 그것이 콘이 하고 싶은 음악이다.

콘은 대학에서 서양음악을 공부하면서 종교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어떻게 연주해야 나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또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늘 그는 음표 위에서, 네 개의 현 위에서 고민했다. 불교는 물론이고 영혼과 닿아있는 것들이면 모두 두드렸다.

“불교가 좋은 것은, 나를 기다려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내가 주인공이라서 좋아요. 비울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주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게 불교인 것 같아요. 나의 삶과 음악이 전부 불교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음악이 서양음악이고 보면 더욱 그렇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교는 비워냄으로써 가득 찬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요.”

연주는 손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 위로 올라가는 손가락은 영혼의 소관이고, 마음의 소관이다. 결국 연주는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영혼이 품은 빛깔과 마음이 지닌 방향이 있을 때, 연주자는 바이올린을 잡을 수 있고 활을 켤 수 있는 것이다. 순간순간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숨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마도 연주자가 할 일일 것이다. 좌복 위에 앉은 수좌가 한 걸음 한 걸음에 어김없는 마음을 실어야 하는 것처럼 연주자는 음표 하나하나에 어김없는 영혼을 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연주’보다는 ‘하고 싶은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이다.

“늘 무대에 서야 하는 연주자에게 일초일초의 마음은 바로 수행자의 한 걸음 한 걸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순간의 어긋남이 그동안 잘 몰고 온 마음을 한 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노래하고 연기하는 K-클래식 한류 주역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콘은 한국 최초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이자 뮤지컬 배우,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콘은 전공했던 클래식 바이올린을 토대로 집시, 탱고, 재즈 등 여러 음악장르를 섭렵하여 ‘새로운 집시’라는 뜻의 ‘누에보 집시(Nuevo Gypsy)’ 장르를 만들었으며, 2010년 첫 앨범 ‘Nuevo Gypsy(누에보 집시)’를 발표하여 한국 클래식 음악 시장에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 앨범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 되었던 집시바이올린 앨범으로, 콘이 직접 전 곡을 작곡, 연주, 프로듀싱해서 더욱 화제가 됐다. 2013년 발매한 ‘Nuevo Gypsy(누에보 집시)’ 2집 앨범 역시 콘이 전 곡을 작곡, 연주, 프로듀싱하면서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 그런 콘은 현재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바이올린 이외에도 콘은 여러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최초의 액터 뮤지션 뮤지컬 ‘모비딕’에서 주연 퀴퀘그 역을 맡아 뮤지컬 배우로도 큰 호평을 받았으며, 그 뒤 브로드웨이 뮤지컬 ‘FAME’에서 슐로모 메첸바움 역을, 창작 음악극 ‘Fatal Invitation’에서는 작곡, 음악감독 및 주연인 파가니니 역할을 맡았으며, 창작 뮤지컬 ‘오필리어’에도 출연하는 등 뮤지컬 배우와 음악감독으로서도 크게 활약했다.


2017년 부다페스트 봄 축제에서 연주하는 콘.

노래, 연기하는 K-클래식 한류 주역
한국 최초 집시바이올리니스트
2010년 첫 앨범 ‘누에보 집시’
뮤지컬 배우, 싱어송라이터 등
국내외 멀티 아티스트로 활동

“음표 하나하나에 영혼 실어야”
“불교는 오솔길의 벤치 같은 것”

또한 일본에서는 드라마 ‘스즈코의 사랑’, ‘붉은 실의 여자’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드라마 ‘붉은 실의 여자’에서는 OST에 참여해 작곡, 메인 테마 연주 등 1인 5역을 소화함으로써 일본 관계자들로 부터 재능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콘이 일본 여가수 카라시마 미도리와 듀엣으로 녹음한 주제가 ‘사랑은 어디에(愛はどこに)’는 뮤직비디오로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콘의 일본 데뷔 앨범 ‘Nuevo Impacto(누에보 임팩토)’에 수록되면서 가수로서도 화제가 되었다.

이외에도 콘은 양방언, 이와오 후루사와, 니시무라 유키에, 마츠나가 타카시 등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과 공연, 콜라보레이션, 음반 작업 등 활발한 교류 및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이 서울 페스티벌, 예술의 전당 재즈 페스티벌, 동경 스프링 뮤직 페스티벌 등 국내외의 각종 음악 페스티벌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JTBC에서 방영된 ‘히든싱어 시즌3’의 이적 편에 출연해 뛰어난 노래솜씨와 모창능력으로 우승을 차지, 왕중왕전 에 진출하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노래 싱글 앨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돼’, ‘그대는 어디에’를 발표했다.

2011년 일본 데뷔에 이어 2015년 중국, 2016년에는 헝가리에서도 공연활동을 시작하며 명실상부한 한류 아티스트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집시 음악의 종주국인 헝가리에서 그의 집시음악을 인정받았다. 콘의 자작곡을 현지인들은 헝가리의 집시음악으로 착각했을 정도다.

그 외에도 콘은 집시 음악 팀인 ‘KoN & 집시 카라반’, 크로스오버 음악 팀인 ‘KoN & 프렌즈’를 이끄는 한편, 추계예술대학교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나에게 불교는 오솔길 끝에서 기다리는 벤치”

“불교는 나에게 벤치 같은 것이죠. 오솔길 끝에서 기다리는. 저의 시간은 늘 화려하게 보이죠. 무대에 서는 시간만큼은 늘 주인공이고요.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관객들 속에서 살죠. 하지만 그 화려한 시간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면 그 화려했던 시간만큼의 허무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나이롱 불자’인 저에겐 더욱 부처님의 ‘무(無)’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자신을 ‘나이롱 불자’라고 했다. 어머니의 그늘이 있어 그나마 절 마당이라도 걸었다고 했다. 그는 다시 음표 위로 돌아가 고단한 길을 걸어야 한다. 누군가의 위로를 위해서 다시 바이올린을 잡아야 한다. 그에게 음표는 놓을 수 없는 화두요, 무대는 떠날 수 없는 좌복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행복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㉕ 행복과 108배



그림 · 박구원

엊그제 '108배'를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회의 글을 쓰게 되었다. 25회에 걸쳐 글을 쓰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결론은 "능동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108배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번뇌가 치성하던 젊은 날,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지금의 나에게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길을 찾다가 108배를 하게 되었고, 3천배도 하게 되었다.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졌고, 가볍다 보니 마음이 맑아졌다. 맑아지니 밝아졌고 밝아지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였다. 보이다 보니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게 되었다. 참회를 하다보니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감사하다 보니 마음 밭이 조금씩 넓어졌다. 마음 밭이 넓어지자 굳이 무엇을 바라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실로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였다. 이러한 108배 자체가 주는 변화와 행복감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절수행에 대한 글을 쓰게 하지 않았나 싶다.

며칠 전 일본의 한 사찰에서 열흘 정도 정진을 하고 온 도반을 만났다. 남편의 고향인 호주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녀는 매해 이맘때면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얻어 한 달 정도 마음공부에 몰입하고는 한다. 올해는 어깨에 탈이 나서 치료차 휴가를 당겨쓰느라 정진하는 날이 짧아 아쉬웠다고 하는데도 안거에 들었다가 막 산문을 나온 스님처럼 맑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곳에서 공부하던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했다.

"정진을 하면서 아무런 관념 없이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익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들 때 안심을 얻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108배 수행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 같아 마음에 남아있다. 몇 해 전 일본의 저 사찰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라고 한다. 60대 중증 암환자인 한 남자분이 수술을 받는 대신 절에 와서 참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입소를 청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정진에 전념한다면 있어도 좋다는 지도 스님의 허락을 받고 그는 각 나라에서 모인 3,40명의 도반들과 참선에 들었다. 그는 선방 문 가까이에 앉아다가 힘에 부치면 나가서 쉬기도 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며 정진했다. 나의 도반은 시시각각 육신이 허물어져 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무상한 삶과 죽음의 실체를 가까이에서 보았다고 한다.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모습을 여실히 보면서 무엇보다 크게 배운 바가 있다고 하는데,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아무런 분별없이 몰두하는 일이라는 것이 큰 배움이었다는 것이다.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두려워도 자연으로 받아들이고 스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용기 있는 분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입가에 흘러내린 그분의 침을 닦아줄 때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싫어하지는 않을까, 직접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죠. 침이 흘렀으니 곁에 있던 내가 닦아주는 그 행위 외에 다른 생각은 무의미 한 거예요. 처음 그분의 시중을 들어드릴 때는 그분을 돕는다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 그러다가 사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는데, 나중에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그냥 서로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냥 서로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 그렇다. 삶은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없이 순간순간 할 일을 다 할 뿐인 것이다. 그것이 무심으로 사는 삶이며 무심일 때 가장 자연스러운 최선의 삶이 되는 것이다.

십오륙 년 전, 큰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던 겨울의 일이다. 해인사에 다녀오면서 문경에 있는 절에 가기 위해 산길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날도 어둑어둑해질 때 산속에서 그것도 재를 넘는 데 눈을 만났으니 정말 난감한 일이었다. 나중엔 폭설로 변해 앞이 보이지 않았고 길이 미끄러워 브레이크를 밟은 채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온갖 생각이 다 올라왔다. 조금 일찍 가겠다고 대로를 놔두고 산길로 들어온 일이 후회막급이었고, 이러다가 옆 계곡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눈이 그치지 않으면 이 산속에서 어쩌나, 마을이 보이려면 얼마를 더 가야 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며 두려움에 떨던 나는 딸의 외침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엄마! 우리 관세음보살을 부르자."

이럴 때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지혜롭다. '그렇지, 염불!' 염불에 정신을 집중하자 마음이 안정되었다.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는 몇 대의 차들도 위로가 되었다. 기다시피한 채 산속 길을 내려온 지 한 삼십 분 지났을까 드디어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빠르게 산길을 내려온 것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때의

능동적이고 행복한 삶의 길
108배 수행에 모두 담겨 있어
"현재의 삶에 한껏 집중하세요"

일을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인생에서도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위기의 순간이 지나간다는 것, 삶의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은 그때 필요한 일을 할 뿐, 과거나 미래 등 다른 생각은 사실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선지식들은 말한다. 삶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나갈 뿐 다른 게 없다고. 그런데 그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다. 한두 번의 경험이나 생각, 누군가의 가르침 가지고는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108배를 하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한다. 그 수없는 연습 과정을 거쳐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08배, 3000배에 정성을 다해 몰입했던 순수무잡의 경험을 삶에 대입시키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듯 병아리가 알을 품듯 그러한 집중과 정성으로 인생을 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선지식들은 말한다.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들려주지만, 들을 때 잠시 위로될 뿐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108배를 하고 3000배를 지속적으로 하며 내 몸으로 익히면, 저 금쪽같은 말씀들이 백번 옳은 말씀으로 다가오고, 드디어는 내 것이 된다. 명백히 몸과 마음으로 익힌 108배의 힘인 것이다.

108배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108배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108배 연재가 나가자 많은 분들이 108배를 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도반 한 분은 아들이 절하는 방석에서 손자가 앉아 노는 감동적인 사진을 보여주었다. 멀리 미국에서 치과의사를 하고 있는 아들이 유학시절부터 시작해서 결혼해 아이를 낳고 취업을 한 지금까지 108배를 하고 있다는데, 유학생활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유능한 의사가 되는 데 108배가 한 몫을 한 것 같아, 누구에게나 절을 권하고 있는 나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얘기로 다가왔다.

매일 새벽, 108배를 하고 있다는 여성 번역가 한 분은 다리를 다쳐 병원엘 가게 되었는데, 절을 하다가는 무릎에 큰 무리가 올 거라면서 절대로 절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는 혹시나 늙어 고생할까봐 108배를 반으로 줄여 54배를 했다. 그런데 영 마음도 몸도 개운하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108배를 하기 시작한지 십여 년이 넘었는데, 오늘날 108배가 주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108배를 해서 나중에 혹여 관절염으로 고생하더라도, 지금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108배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그녀의 절 수행에 대한 신념이다.

또 한 거사님은 어머니가 신심 깊은 불자로 한평생 수행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불자이다가 몇 해 전 본 책 한 권에서 '한 번의 참 절을 하기 위해 만 번의 헛 절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절을 하기 시작했다. 출근하기 전에 3배부터 시작한 절이 108배가 되었다가 3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 3백배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이다. 절을 하고 출근을 할 때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 몸이 따뜻해져서 기분이 좋다고 한다. 젊을 때부터 소화력이 약해 바짝 말랐던 몸이 절을 하고 나서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보기 좋게 체중이 늘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이 들수록 멋있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무언가를 바라고 성취하기 위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절수행이라는 걸 안 것도 큰 수확이라고 했다.

등산 애호가였던 거사님 한 분은 칠십 세가 넘어 뇌출혈을 겪고 나서 등산도 못 다니고 변변한 운동을 못하다보니 팔을 뒤로 돌리기도 어려울 만큼 몸이 굳어졌다. 매일 108배를 하며 몸은 근육을 썼더니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고 건강이 좋아졌다며 좋아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백일 동안 매일 1080배를 하면서 성에 차지 않던 결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내 친구, 새로운 일을 앞두고 21일 동안 매일 108배를 하면서 전의를 다진 스물아홉 살의 내 큰 딸, '괜찮아 108배가 있으니까!' 하고 언제든 힘들 때마다 108배를 하는 작은 딸도 108배 동지다.

턱관절로 고생하다가 절을 해서 관절 치료는 물론 성형한 것보다 더 멋지고 예쁜 턱을 갖게 되었다는 어느 아버지와 딸도 있고, 오래 잘못된 자세로 인해 틀어진 골반이 제 자리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집중력과 정신력을 키우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있다는 영화배우 문소리씨, 매일 새벽 6백배를 하며 부도의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체를 큰 기업으로 도약시킨 기업인도 있다. 무명 속을 헤매는 중생으로부터의 환골탈태를 염원하며 매일 새벽 산사를 찾아 1080배를 하는 한의사,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공손한 마음으로 108배를 하고 있는 새댁, 자식을 위해 수천 번 무릎을 꿇으며 절하는 부모님들도 있다. 숭산스님은 여행 중 비행기 안에서도 1080배를 하며 평생 매일 해온 1080배를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스승에게 화두를 받기 위해 3천배를 했던 스님들은 아직도 매일 108배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08배를 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108배,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보시길 바라며, 마지막 글을 마친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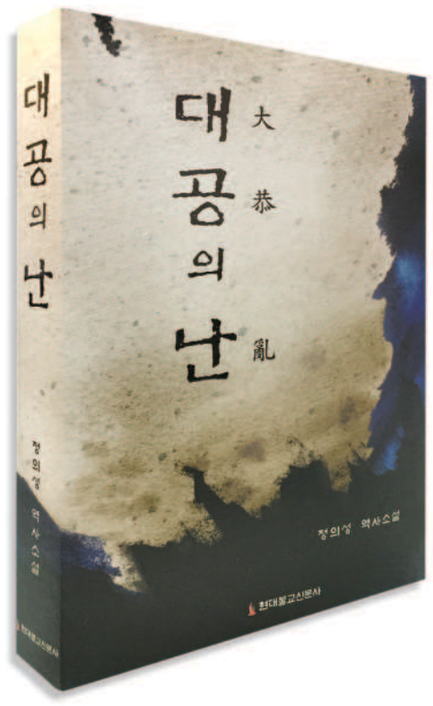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대학생불교연합 BTN 대표이사 서성우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2.20~2017.12.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올바른 삶 통해 행복 누리게하는 가르침이 불교"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수업

김사업 지음
불광 펴냄
1만 6천원

이 책의 저자 김사업 박사는 불교인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인사다. 교수직을 버리고 전문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이력도 큰 화제였지만, 정확하면서도 공감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불교 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강의를 듣다보면, '불교가 이토록 친근하고 흥미로운 가르침이었나' 싶을 만큼 깜짝 놀란다. 한 번 들으면 단박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의 명강의를 현장의 숨소리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모두가 선망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시작한 사회생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삶에 대한 끝없는 의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했다. 1년여 만에 장래가 촉망되는 회사를 그만두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학사 편입했다. 이후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일본 교토대학에 유학해 불교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귀국 후 수년간 대학 강단서 불교를 가르쳤지만 '아는 대로 행해지지 않는 교리'는 절름발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강단을 떠났다.

그리고 남해안의 외딴섬 '오곡도'에 들어가 간화선 수행에 매진했다. 그 후 16년이 흘러 오늘에 이른다. 그 사이 전 세계의 고승들과 유명 수행처를 찾아다니며 함께 수행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이 책의 글은 먼저 불교계 대표 잡지 월간 〈불광〉에 2년 6개월 간 연재되었다. 연재 당시 독자들의 절대적인 호응은 물론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론과 실천, 교리와 수행이 하나가 된, 그야말로 몸으로 체득한 불교를 담아냈기 때문이다.

또 안개 속의 섬처럼 닿을 듯 말 듯한 '무아, 연기, 공, 자성, 업, 마음, 유식, 윤회, 열반, 해탈' 등의 불교 사상을 우리의 일상적 삶에 대입해 명확하게 풀어냈다. 마치 어둠 속에 딸각 불이 켜지듯,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 열어준 것이다. 그것은 곧 지금 나를 억누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자유로운 삶, 그럼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간결하다. 불교 교리의 고갱이만을 추려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냈다. 감동적이기까지 한 이야기는 온전히 마음에 스며들어 눈이 되고 귀가 되고 혼이 된다. 선(禪)을 바탕에 깔고 연기, 공, 유식의 핵심을 모두 보여주며, 정곡을 찌르는 일상적인 실례를 통해 그 핵심이 자연스럽게 삶에 배어들게 한다.

글쓰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누구라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퇴고 과정을 수십 번 거치며 낱말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 썼다. 책 속에 갇힌 불교가 아니라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살아있는 불교가 되도록 한 과정이었다.

간결한 구성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저자, 16년동안 남해안 오곡도서 수행
불교사상을 일상적 삶에 대입해 해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분명한 방법 제시

저자는 말한다. "자신의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알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서 부작용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라고. 이 책이 인문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읽는 순간 '앎'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내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진단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계발서'이기도 하다. 삶을 이롭게 이끄는 힘을 자신 안에서 찾게 만드는 책을 진정한 인문서라고 할 때, 이 책은 우리 시대 새로운 명저이자 미래의 고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부처님은 인생은 고(苦), 즉 괴로움이라고 했다. 진취적이며 혈기왕성한 젊은이라면 그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나 살다보면 느낀다. 숱한 방황과 도전, 성취와 좌절, 웃음과 탄식 사이를 넘나들며 절실한 물음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때가 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인문 고전을 탐독하고 선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보지만,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치며, 불교를 통해 삶의 이치와 원리를 이해하며 괴로움에 속박되지 않는 삶을 갈구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머리로는 간신히 이해해도, 막상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 그 가르침과 지혜를 적용하기 어렵다. 왜 그런가.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그야말로 인생, 삶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당시 대중의 언어(빨리어)로 당신의 깨달음을 아주 쉽게 설법했고, 누구나 그 말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 각자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가 후대로 전해지면서 부처님이 신격화되고 불교교리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욱 심오하고 난해해졌다.

불교사상은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에서도 유추되듯 한없이 방대해졌고 철학적 사유의 개념으로 변모됐다.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도리어 더욱 복잡하고 어지러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수많은 불교서적이 고전어로 쓰인 경전을 번역하거나 난해한 사상을 풀이하는데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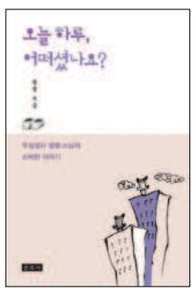
또는 단지 쉬운 위로와 힐링을 내세우며 본질은 외면한 채 그럴싸한 껍데기로 치장만 할 뿐이다.

이 책은 이러한 갈증을 해소한다. 불교의 진면목을 직시하며 우리의 실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문학, 역사, 철학 등 모든 인문학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그러므로 그 끝은 종교적 물음에 닿게 되며, 이 책은 불교의 답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중생의 고통 원인 바로보지 못하면 불교 아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광명 스님 지음
운주사 펴냄
1만 4천원

소박하다. 절이 그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스님이 그러하고, 절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무심정사는 소박하고 소탈하고 정겹고 사람 냄새 나는 곳이다.

이 작은 책 속에는 읽는 이들을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이야기, 때론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세상과 동떨어진 고고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우리네 보통사람의 세상사는 모습과 정이 풍기는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다.

부처님의 법은 지혜와 자비의 두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둘은 다르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비롭지 않을 수 없고 자비로운 사람이 지혜롭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둘은 불교의 방편이자 궁극이다. 따라서 중생의 희로애락과 공감하지 못하는 지혜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오늘은 어떠셨나요?"라고 묻는 광명 스님은 동두천 마차산이 바라보이는 솔향기 그윽한 작은 절 무심정사에 살고 있다. 작은 절임에도 젊은 신도들이 많은 이유는, 굳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광명스님 때문이다.

무심정사에는 봄이면 꽃 피고 새 울고 여름 녹음과 가을 단풍과 겨울 눈 내리는 마차산 사계절 풍경이 잘 보이는 창 넓은 미소방(微笑房)이 있다. 미소방으로 많은 이들이 스님을 찾아온다. 부부갈등이나 자녀문제, 사업문제 등등을 스님이 내준 따듯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스님의 따듯한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무심정사를 내려간다.

중생과 공감못한 지혜는 메아리 일뿐
'밥값해라', 저자의 삶과 수행의 철칙
보통사람의 세상사는 얘기 잔잔히 펼쳐

쌀 한 톨에 일곱 근의 무거움이 있다고 경책한 옛 어른들의 "밥값해라!"라는 말은 스님이 자신의 삶과 수행의 철칙으로 삼는 글귀이다. 닭벼슬보다 못하다는 중 권력에 사로잡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스님의 마음과 행동과 글은 작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런데, 깨달음을 자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하여 주변의 아픔과 고통에 눈을 감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중생들의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은 불교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어불성설이다.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만이 희망인 것은, 사랑과 자비심이 인간이 발현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큰' 스님을 외치고 추앙하는 세태에서, 스스로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낮추고 낮추며 다시 발심하고 중생과 함께하는 스님의 모습은 출가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저자 광명스님은?

동두천 마차산 무심정사에 머물고 있다. 마차산이 그림처럼 보이는 법당 미소방에서 무심정사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차 한잔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지낸다. 더불어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군포교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수행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신국판양장/460쪽/27,000원

3 밀교학 개론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현송/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신국판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신국판양장/496쪽/25,000원

31 승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신국판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신국판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신국판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신국판양장/464쪽/25,000원

35 삼계교 연구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36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신국판양장/272쪽/16,000원

37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신국판양장/364쪽/20,000원

38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2016년 〈해인〉지에 잠시 사진을 연재하던 중 해인사 강원의 학감 스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 인연으로 강원을 기록하는 사진작업을 의뢰 받았다. 내겐 몹시 긴장된 제안이었다. 그리고 2017년 봄의 끝자락 6월 말, 이른 아침 절 마당에 모인 강원 스님들과 첫 상견례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해인사 강원 스님들의 생활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다.

-하지권



하지권 作. 법고 2



하지권 作. 용맹정진 3



하지권 作. 소임 2

‘행복한 수행자’를 에 담다

‘절집, 세 번째 이야기–해인사 강원’

하지권 사진가 네 번째 개인전

2017.12.23.~2018.1.7.

합천 해인사 구광루

강원의 내밀한 기록 98점

학승의 치열한 일상 담아

‘불교’ 어울리는 ‘흑백’ 세계

17년 간 불교사진을 찍어온 다큐멘터리 사진가 하지권 작자의 네 번째 개인전, ‘절집, 세 번째 이야기-해인사 강원’이 2017년 12월 23일(토)~2018년 1월 7일(일) 합천 해인사 구광루에서 열린다.

이번에 전시되는 98점의 사진은 올해 6월부터 촬영한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굳게 닫힌 해인사 강원의 내밀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강원은 스님들의 대학이다.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스님들만의 영역이다. 선지식의 가르침 아래 승가의 가풍과 법도를 익히고, 올바른 수행자의 길을 가기 위해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는 곳이다. 강원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과 수학, 그리고 일상을 담았다. 진지하게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습, 울력하는 모습, 예불하는 모습, 법고를 두드리는 모습, 잠을 잊은 용맹정진 등 강원 스님들의 진지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들은 왜 스님이 되고 싶었을까. 물음표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러던 중 강원 학감스님과 대화중에 알게 된 것이 있었죠.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공부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행복한 수행자’를 담기로 했죠.”

이번 사진들은 사진의 출발점인 기록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 산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해인사 강원 스님들의 시각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또 하나, 작가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미학적 순간에도 충실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사시예불 때, 예불소리에 이끌려 법당으로 올라간 하 작가는 우연히 법당에서 창밖을 지그시 내다보고 있는 스님을 보게 된다. 같은 곳에서 같은 예불소리를 들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사진가이고 한 사람은 출가자이다. 하 작가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생각했다. 그리고 스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 작가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카메라에 담겼다. 그렇게 이번 사진은 기록에서 끝나지 않고 미학을 안고 있다. 눈에서 출발하지 않고 마음에서 출발한 사진들이다. 그리고 그 미학적 성과를 위해 사진은 모두 흑백이다.

“단순함, 혹은 무(無)와 공(空), 군더더기를 버려야 하는 불교의 속성이 미학적으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선 흑백의 이미지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렇듯 이번 사진은 들여다보기 힘든 곳의 단순한 기록에서 멈추지 않고 미학적으로도 깊이 고민한 사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 절집의 풍경을 아쉬워하는 불자의 마음이 담긴 불자의 사진이다.

“용상방 아래서 스님들이 대나무 옷걸이에 가사장삼을 정리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땐 스님들이 많아서 대방 곳곳에 옷걸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칸의 옷걸이가 있을 뿐이죠.”

하 작가는 아쉬움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울력을 위해 화려한 가사장삼을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 작가는 “해인사 강원 촬영은 소중한 기록이자 행복한 기록이다.”고 말한다. 전시 문의/ 055-934-3000.

박재완 기자

충직, 용맹한 인간의 오랜 친구, 개

국립민속박물관 무술년 개띠 해

특별전 ‘공존과 동행, 개’ 개최

국립민속박물관은 2018년 무술년을 맞아 2017년 12월 22일(금) 부터 2018년 2월 25일(일)까지 무술년 개띠 해 특별전 ‘공존과 동행, 개’를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II에서 진행한다.

인간의 오랜 친구, 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십이지신추(錘)’와 ‘개 모양 장식 굽다리접시’, 사도세자 作으로 전해지는 ‘견도(犬圖)’ 등 다양한 전통 유물과 함께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명 구조견’ 등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와 관련된 영상 등 70여 점의 자료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전시 첫날인 22일(금)에는 무술년 개띠 해 학술강연회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개는 충직함과 친근함, 용맹스러움을 함께 지닌 동물로,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 인간과 가깝게 지내는 동물 중의 하나다. 개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친근한 존재임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땅을 지키는 십이지신 중 열한 번째 신장으로 악귀를 쫓고 공간을 지키는 길상의 존재로 여겨왔다. 세화와 부적에 개가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도세자 作. ‘견도’

이번 특별전은 신성하면서도 친숙하고 용감하면서도 귀여운 개의 다양한 면모와 특징을 조명하여 개가 지닌 여러 의미를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제1부 ‘인간의 수호 동물’에서는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이면서 서북서 방향을 지키는 방위의 신이자, 오후 7시에서 9시를 담당하는 신격인 개의 상징과 의미를 알아본다.

제2부 ‘인간의 반려동물’에서는 인간의 주변에 머물며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의 모습을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 무등산 미륵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 부 설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총무원 :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전 화 062)234-9834 | 팩 스 062)223-9233
핸드폰 010-4152-4744, 010-5479-5607



日 특유 '신불습합' 신앙을 만나다

〈神佛習合〉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㉔ 나치산 세이간토지

1년 동안 나라 · 교토를 중심으로 간사이 사찰을 소개해온 이 연재도 드디어 이번 호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연재 중간 중간에 조금씩 약간 변경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해 왔다. 원래 지난 회에 시가현 호북 지역의 사찰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더 한 번 기사를 올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동안 어디를 소개할지 고민했다. 이제껏 소개하지 못한 나라나 교토의 사찰을 몇 개 골라서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찰을 소개하는 것이 더 신선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와카야마현(和歌山縣)에 있는 사찰 소개로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찰이 오사카에서 특급을 타고 3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이어서 당일 여행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원래 나는 이 연재 기사를 쓰는 데 오사카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만 소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 원칙을 깨고 독자 분들을 색다른 세계에 안내한다.

신앙의 산지 '기이 산지'

간사이 지방의 남쪽에 태평양쪽으로 돌출된 기이 반도는 일본 최대의 반도이다. 와카야마현은 기이 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그 가장 남쪽에 있는 시오노미사키(潮岬)는 일본 열도 본주(本州) 최남단이다. 기이 반도 대부분이 기이 산지(紀伊山地)라는 산악지대이며 최고봉인 해발 1915m 핫켄잔(八劍山)을 비롯하여 높고 험한 산들이 기이 반도를 덮고 있다. 온난하고 강우량이 많은 기후로 풍요한 자연이 형성된 기이 산지는 예로부터 산림, 바위, 폭포 등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자연 신앙의 곳이었다. 이런 자연 환경과 신앙을 배경으로 영장(靈場)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영장이 '요시노(吉野) · 오미네(大峰)', '고야산(高野山)', '구마노 삼산(熊野三山)'이다. 요시노 · 오미네는 나라현 남부에 위치하여 일본 특유의 신앙인 슈겐도(修驗道)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슈겐도란 나라 조고손시지(朝護孫子寺), 호잔지(寶山寺)를 소개했을 때 말했듯이 산에 신이 계시는 곳 혹은 산 자체가 신이라고 여겨 산을 존숭해 온 일본 고래의 산악신앙이 불교나 도교 등과 결합된 혼종 종교이다. 특히 입산하여 엄격한 수행을 하는 모습이 유명하다.

고야산은 도지(東寺) 기사에 등장한 명승 구카이(空海)가 개창한 진언 밀교의 성지이다. 그리고 구마노 삼산은 일본 특유의 신앙인 신불습합(神佛習合)으로 옛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신앙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에 소개할 사찰인 세이간토지도 구마노 삼산에 속한다. 2004년에 기이 산지의 3곳의 영장(靈場)과 세 곳의 참배길이 '기이 산지의 영장과 참예도(紀伊山地の靈場と參詣道)'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구마노 삼산

구마노 삼산이란 구마노혼구타이샤(熊野本宮大社), 구마노하야타마타이샤(熊野速玉大社), 구마노나치타이샤(熊野那智大社)의 총칭이다. 세이간토지는 원래 구마노나치타이샤의 일부분이었다. 자연 신앙을 기원으로 하여 원래 각각 고유의 신이 있었다.

헤이안 시대 후반에 신불습합이나 아미타신앙 등 여러 신앙이 결합되면서 세 곳이 일체화되어 구마노 삼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정토신앙의 유행으로 구마노 삼산 전체가 정토라고 여겨져 상황, 귀족, 무사(武士), 민중 등 신분의 귀천 구별 없이 많은 사람이 참배했다. 그것을 구마노 모우데(熊野詣)라고 부른다.

상황, 황태후 등 황실 사람들이 구마노 모우데를 열심히 했던 것이 구마노 모우데의 특징이다. 10세기 초에서 14세기 초까지 약 400년간에 황실 사람들의 참배는 100번 이상이 되었다. 평생에 30번 이상 참배한 상황도 있었다.

중세의 자료에 의하면 어떤 상황의 구마노 모우데 때 동행한 사람이 814명이 되고 말이 185마리가 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실, 귀족에 이어 민중의 구마노 모우데도 늘어나 많은 사람이 참배하는 모습이 마치 개미의 행렬과 같다고 하여 '아리(=개미)의 구마노 모우데'라고 표현되었다.

기이 반도에 펼쳐진 山地
日 자연 신앙 성지 존재해
불교 · 신도 합친 '신불습합'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와

근세에 들어 구마노 모우데는 쇠퇴했지만 구마노를 찾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 이 연재에서 소개한 사이고쿠33쇼순례(西國三十三所巡禮) 영장의 하나로, 사람들이 세이간토지를 찾아갔다.

나치산 세이간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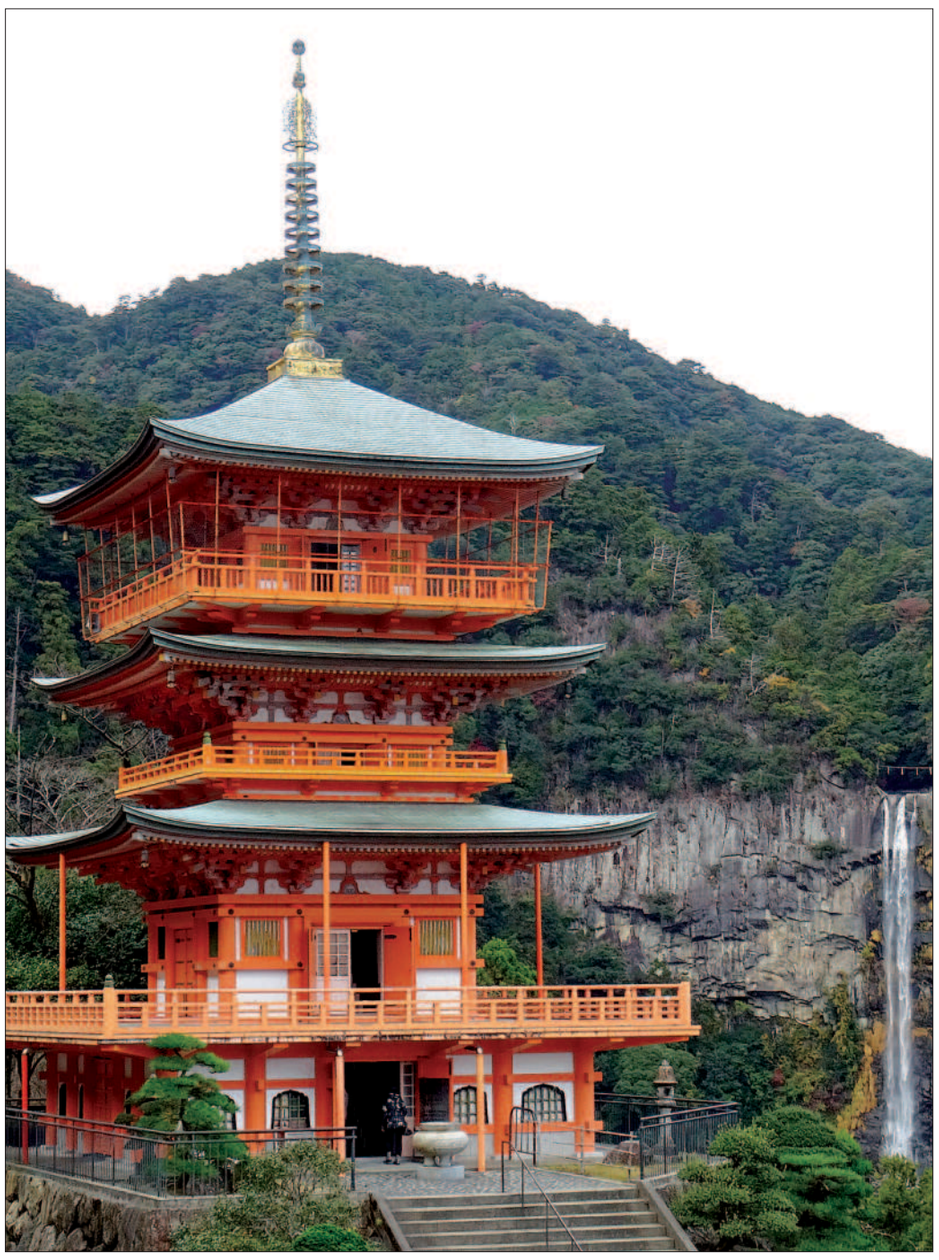
기이(紀伊) 반도 동북쪽에 있는 미에현(三重縣)에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인 이세신궁(伊勢神宮)이 있다. 이세신궁은 일본 전국에 있는 신사의 총본산이고 천황가의 씨족신, 식량의 신을 섬기고 있다. 원래 천황 이외의 사람이 참배할 수 없었으나 무가의 세력 확대에 따라 서서히 문호가 개방되어 무로마치 시대에는 역대 장군들이 참배했다. 에도 시대에 들어 민중이 이세신궁을 참배하는 '오이세마이리'가 유행했다. 에도(도쿄)나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먼저 오이세마이리를 한 다음에 사이고쿠33쇼순례도 했는데 세이간토지에서 시작했다.

세이간토지의 창건 시기 등이 확실하지 않지만 사전에 의하면 4~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다. 인도의 승려인 나교상인(裸形上人) 일행이 기이 반도에 표착(漂着)해 각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나치 폭포에서 수행했을 때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을 감득하여 이곳에 암자를 짓고 관음상을 본존으로 안치했다. 6세기 말~7세기 초에 나라에서 온 쇼부쓰히지리(生佛聖)라는 승려가 여의륜관음상을 새로 만들고 나교상인이 만든 관음상을 자기가 만든 관음상 안에 넣었다. 또 가람도 건립했다. 사전에 의한 창건 상황이 전설적인 인상이 있다. 아무튼 여기가 고대부터 나치 폭포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신앙의 성지였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이초(엔랴쿠지), 구카이, 엔친(미이데라) 등 연재 기사에서 등장한 명승들도 나치에서 수행했다.

중세에는 구마노 모우데, 근세에는 사이고쿠33쇼순례로, 많은 사람이 참배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메이지 정부의 신불분리(神佛分離) 정책으로 많은 건물이 없어지고 황폐되었다. 신사의 일부분이었던 여의륜당이 신사에서 분리 독립해 사찰 세이간토지가 되었다. 구마노혼구타이샤, 구마노하야타마타이샤의 불당이 없어지고 지금은 신사만 남아 있다.

현재 본당(여의륜당)이 1581년에 병화로 소실된 것을 1590년에 재건했는데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나치 폭포와 함께 세이간토지의 상징처럼 사진이 나오는 삼중탑은 헤이안 시대에 처음 건립되었다고 추측된다. 에도 시대 때 폭풍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현재 삼중탑은 1972년에 지어진 것이고 안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다. 삼중탑에서 바라보는 태평양, 나치 폭포는 정말 아름답다.

〈끝〉



세이간토지 삼중탑과 나치 폭포의 전경. 나치 폭포와 함께 세이간토지의 상징처럼 사진이 나오는 삼중탑은 헤이안 시대에 처음 건립되었다고 추측된다. 하지만 에도 시대 때 폭풍으로 무너졌고, 현재 삼중탑은 1972년에 재건됐다.

나치산 세이간토지 답사 안내



대중교통으로는 JR신오사카(新大阪), 덴노지(天王寺) 등 역에서 특급을 타고 기이카쓰우라(紀伊勝浦)역까지 간다. 기이카쓰우라역에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있는 노선버스를 타고 나치산이라는 정류장에서 내린다(소요 시간 약 25분). 거기서 비탈길을 올라가면 세이간토지, 구마노나치타이샤가 나온다. 거기서 나치 폭포 가까이까지 걸어갈 수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폭포인 나치 폭포는 낙차 133m 있는 큰 폭포이고 '일본 3개 명폭(名瀑)'의 하나로 꼽힌다(나치 폭포 앞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다).

구마노 삼산을 돌아다니는 길을 구마노코도(熊野古道)라고 부른다. 구마노코도를 걷는 코스는 종류가 많아서 내가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싶다면 나치산에 갈 때 도중에 있는 다이몬자카(大門坂)라는 정류장에서 내리고 사찰까지 걸어가면 구마노코도 일부분이지만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노선 버스 티켓을 구입할 때 왕복표를 구입하면 할인이 된다.

연재를 마치며

마지막 사찰 소개도 마치고 이제 독자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가 되었다. 1년 동안 연재 기사를 읽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국인 필자에게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신 현대불교신문사와 간사이 사찰 소개 연재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최선일 박사, 감수해 주신 홍은미 실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46세 때 비로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내가 번역 없이 직접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1년 동안 답사를 많이 했다. 동행자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답사했다. 일본 시골에서 야생 동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골 답사로 가면 사람이 거의 없는 산속에서 '반달곰이나 멧돼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뛴 적도 있었다. 그래도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답사하는 일은 기분이 참 좋다.

나는 한국에 거주했을 때 산책길이나 사찰 답사를 즐겼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분이 일본을 방문해 사찰 답사를 즐기시기를 바란다. 그 때 나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흔적, 그 그리운 풍경

누구의 흔적도 간단하지 않다. 한 철 왔다 가는 풀잎도 그 자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 흔적 때문에 바람의 길이 바뀌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 때문에 오늘은 늘 어렵다.

어디에 있는가. 너. 한때 분명 이름이었던 너. 꽃이 진 자리마다, 풀이 다한 자리마다 바람이 지나가듯 네가 머문 자리를 찾아 지나가고 싶다. 우리 모두 그것을 그리움이라 부른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㉕ 아쇼카왕의 불심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라를 돌보니…

아쇼카왕이 8만 4천의 절을 짓고, 8만 4천의 탑을 세우고 나니 온 세상이 부처님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쇼카왕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만백성이 왕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짐승과 온갖 새들까지 아쇼카왕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기어다니는 벌레들까지, 귀신 무리까지 아쇼카왕을 좋아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부처님 법으로 나라 일을 돌보는 임금님이 나타났으니, 이때에 좋은 일을 해서 공덕을 짓자."

갠지즈강이 시작되는 아뇩달못에서 용왕이 나섰습니다. "아쇼카대왕님, 우리는 여기서 대왕의 궁궐까지 깨끗한 물을 날라다 드리죠."

용왕은, 히말라야에서 흘러 모인 아뇩달못 깨끗한 물을 왕궁의 식수로 나르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큰 보배그릇 열여섯에다 물을 담아 궁전까지 날랐습니다.

아뇩달못에서 아쇼카의 궁전까지는 1만 리의 길이었으므로 용의 무리 모두가 힘을 모우고 신통력을 모아야 넉넉한 급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쇼카왕은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히말라야 아뇩달못 값진 물을 받았습니다. 절반은 스님들께 드리고, 두 그릇은 부처님 경전을 지키는 이에게 주고, 두 그릇은 왕비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네 그릇은 자신이 쓰기로 했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귀신무리가 나섰습니다. "우리도 때를 맞추어 공덕을 쌓자. 이 산중에서 나는 부드럽고 향기 있는 나무를 잘게 쪼개어, 대중이 식후에 깨끗한 이를 지닐 수 있도록 하자. 이치개(이쑤시개)를 만들어 대왕의 궁궐에 보내드리자!"

이치개 이름이 라다(羅多)였습니다. 아쇼카의 왕궁에서는 외부의 스님네와 찾아오는 손님 모두에게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왕과 왕비를 비롯한 궁중의 식구들이 1만 6천이요, 스님네가 6만 대중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공양을 끝내고 향기의 라다 이치개를 칭찬하며 하나씩 집어듭니다.

그 수가 엄청나서 하루 만에 이치개 한 짐이 동났습니다. 그래도 히말라야를 지키는 귀신 무리가 향기의 라다 이치개를 계속 만들어 보냈습니다.

히말라야산에서 약이 되는 열매, 아아말라카와 아마륵 · 암라 등을 보내오는 귀신무리도 있었습니다. 과일의 빛깔은 황금빛이요, 세상에서 다시없는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은 고맙다, 고맙다, 하며 보내오는 약과일을 받았습니다. 그 절반은 스님들께 보내고 나머지를 백성과 궁중 사람의 치료에 썼습니다.



그림 · 강병호

"높은 스님들에게 드리십시오"하고, 수건을 갖춘 법복 다섯 벌씩을 날마다 보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왕은 고맙다, 고맙다, 하며 받아서 높은 스님들께 전했습니다. 아뇩달못가에는 향기가 좋은 멥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착한 쥐들이 모여와서 우리도 공덕을 짓자, 하고 멥쌀 껍질을 벗겨서 모았습니다. 착한 앵무새들이 우리도 공덕을 짓자, 하고 쥐들이 까서 모운 향기의 쌀을 작은 자루에 넣어서 목에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왕궁까지 만릿길을 날았습니다.

"대왕님, 아뇩달못 멥쌀이어요!"

"고맙다. 고맙다. 말을 잘하는 앵무새로구나!"

아쇼카왕 왕궁에는 날마다 같은 수의 앵무새가 멥쌀을 목에 걸고 나들었습니다. "우리도 앵무새처럼 공덕을 짓자." 하고 아뇩달못가의 꽃밭에서 꿀벌 무리가 나섰습니다.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앵무새처럼 빨리 날지는 못해. 그래도 앵무새의 길을 따라 날아가보자!"

어느 날부터 아쇼카의 왕궁에는 꿀벌 무리가 날아들어 "붕 붕"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왕님, 아뇩달못에서 꿀을 갖고 온 꿀벌이어요! "

"그래 그래. 고마워!"

아쇼카왕은 꿀벌의 말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쇼카의 왕궁에는 날마다 같은 수의 꿀벌이 꿀을 지니고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가릉빈가 새가 날개를 파닥이며 모였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따르는 새는 없다. 우리는 고운 목소리로 공덕을 짓자."

"당번을 정해서 대왕의 궁궐로 날아가자. 대궐의 숲, 높은 나무에서 고운 노래를 불러, 대왕의 귀를 즐겁게 하자. 대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자!"

이렇게 하여 아쇼카의 왕궁을 둘러싼 숲에는 날마다 같은 수의 가릉빈가가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대왕님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가릉빈가예요. 꾀꼴!"

"우리 노래 즐겁죠? 꾀꼴!"

아쇼카 대왕은 가릉빈가의 말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다. 가릉빈가야. 내 귀가 즐겁구나. 고맙다."

아쇼카 대왕은 나무에 앉은 가릉빈가를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 다스리니 짐승까지, 새까지, 벌레까지 좋아하는 군" 하고 아쇼카왕은 아주아주 만족해 하였습니다. 〈끝〉

선견률비바사(善見律毘婆沙) 제1권 아육왕품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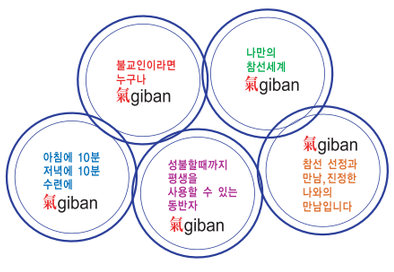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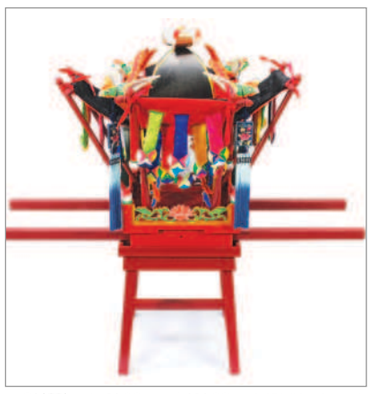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